

연구총서 2000~27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이 우 영

통일연구원

요 약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
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사회주의를 국가발전의 이념으로 삼은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산업화의 지체, 국가사회주의 몰락 등으로 초래된 북한의 체제위기는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인식 변화의 경향성이 앞으로의 북한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망하였다.

사회주의 이념을 발전전략으로 채택한 북한은 자본주의에 대하여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분단과 전쟁의 경험은 북한에서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의식 심화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의 사회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특성과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특성과 변화과정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이 잘 드러나는 것이 남한에 대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은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체제로서 폭력적인 정치구조, 종속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체제이다. 남한의 사회는 계급적 착취에 따른 빈부격차가 심화되어 있으며, 민족문

화를 상실하고 미국의 저질적인 대중문화에 몰들어 있는 딱한 형편에 처해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보는 근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은 시대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50년대까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이념적 자심감을 바탕으로 일반론의 입장에서 자본주의의 근본문제를 비판하였고, 1960년대에는 제3세계를 착취하는 제국주의의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1970년대에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비판은 여전히지만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의 물질적 성과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1980년대에 들어 북한은 여전히 남한 자본주의나 미국의 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국가에 따라서는 공존할 수 있는 자본주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2.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은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문학예술 작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풍요로운 삶이나, 이윤추구, 그리고 외화획득의 추구 등 일상생활에서 자본주의적 가치가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거에는 부정일변도로 그려졌던 자본주의 사회의 화려함 등이 일정한 수준에서 보여지고 있다.

2000년 6월의 남북한 정상회담은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의 분수령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부분적 성과를 인정하던 시기에도 남한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은 변화하지 않았으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한에 대한 태도는 현격하게 변화하였다. 또한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와 북미간 협상의 진전으로 미국에 대한 비판적 인식

도 적지 않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자본주의를 포용하는 폭이 넓어졌으며, 해외의존적인 경제성장모델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독점자본가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의 의미

사회주의 이념을 채택한 분단국가, 치열한 전쟁의 경험, 냉전체제의 심화, 사회주의 산업화의 지체와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북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자본주의를 일정한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고지도자로부터 일반 주민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정도까지의 인식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여전히 불안한 분단구조를 고려할 때,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인식변화를 촉진하는 구조적 요인과 함께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사회의 각 집단간 자본주의 인식의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고지도자가 정치적 결단으로 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인식에 익숙한 사회집단은 인식의 변화에 곤란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회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가 자본주의체제로의 변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는 북한체제의 위기 극복이나, 남북한 평화공존 분위기 정착에는 적지 않게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이 자본주의 인식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신뢰를 회복하면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4
II.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특성과 변화과정	14
1. 북한의 남한체제 인식	14
2.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24
III.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41
1. 1990년대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41
2. 최근 문학예술에 나타난 자본주의 인식	46
3. 정상회담과 북한의 인식 변화	55
IV.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의 의미	74
1. 자본주의 인식 변화의 특성	74
2. 자본주의 인식 변화의 원인	78
3. 자본주의 인식과 북한체제의 변화	88
V. 맺음말	100
참고문헌	104

- 도 표 목 차 -

<그림1-1> 사회변동과 의식체계	10
<그림1-2> 북한의 반자본주의 의식 형성	12
<표3-1> 정상회담기간 로동신문의 남북관계 관련기사 ...	56
<표3-2> 조선통신 정상회담 관련 기사	61
<표3-3> 2000년 11월 조선중앙통신 남한 관련기사	70
<표4-1>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의 주요 연설	92
<표4-2> 북한의 장사경험	95
<표4-3> 장사하는 세대 비율	96

I. 서론

1. 문제제기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으나, 현재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이 불가피한 형편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지배층도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이러한 인식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꾸준히 개방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북한이 시도한 개방정책은 지나치게 제한적인 영역에 머물렀던 까닭에 당면한 식량난 해결이나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개방에 소극적인 까닭은 자본주의의 유입이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배층의 경계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배층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50년에 걸친 정치사회화의 결과로 자본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상당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졌고, 사회주의 이념은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자본주의적 경향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되어온 냉전체제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간의 갈등을 격화시켰기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반자본주의 경향이, 자본주의 진영에서는 반사회주의적 경향이 심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식민지를 경험한 신생독립국가라는 점과 분단이라는 역사적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처한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식민지 경험은 반제국주의

2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경향을 자극하였고, 분단국가로서 남한과의 경쟁은 반자본주의 경향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전쟁의 경험은 비록 전쟁발발의 일차적 책임이 북한에 있더라도 북한의 반자본주의 성향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체제이념으로서 사회주의의 채택, 식민지 경험과 분단 그리고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이 북한의 반자본주의 성향을 강제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북한체제의 정치 구조도 반자본주의 성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 중심의 강력한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되고, 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사회통합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반자본주의 내지는 반제국주의를 사회적·사상적 통합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 반공주의가 통일보다 앞선 가치였던 것처럼, 북한의 경우에도 반자본주의와 반제국주의는 절대적 가치였으며, 이는 체제유지, 특히 지배권력유지의 필요성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권력을 공고화 하는 과정에서 박헌형을 ‘미제의 간첩’으로 처형한 것처럼 사회주의이념 그리고 주체사상이 지배이념으로 절대화되면서 자본주의는 혹은 제국주의는 체제유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하여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세계시장구조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근본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하여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도 같은 이유에서 자본주의를 반대하여야 하는 자기모순에 빠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자본주의, 특히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이 동구사회주의 몰락의 중요한 원인임을 목격한 북한 지도층으로서의 모순적인 상황이 곤혹스러운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경제

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수용, 최소한 자본주의와의 접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본주의를 일정 수준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어떤 형태로 수용하고, 기존의 이념체제 및 문화체제와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는 북한으로서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유일지배체제로 강력하게 통합되어 있는 북한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의 수용 문제는 전적으로 지배층의 판단에 따를 것이지만, 지배층의 사고나 혹은 일반 북한 인민이 자본주의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자본주의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본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남북한관계 개선이나 앞으로 활성화될 남북한간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 그리고 장기적으로 남북한 사회·문화 공동체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결정 수준에서 뿐 아니라 일반 인민의 수준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이 글은 북한이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어떻게 인식하여왔는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는 북한에 대하여 고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북한의 반자본주의 성향이나 반제국주의적 분위기도 일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체계가 존재하는 한 변화가 필수적인 것처럼, 사회의 하위체계라고 할 수 있는 이념체계나 문화체계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북한의 자본주의관도 일정한 수준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급격한 상황변화 속에서 기존의 자본주의관이 어떠한

4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 전망과 관련되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사회변동과 의식체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연구 방법을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특성을 살펴보고 시대별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 인식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통상적으로 사회변동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전체 사회구조 혹은 사회체계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변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양한 차원의 변동이 혼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차원의 사회변동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회체계가 다양한 하위체계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즉, 다양한 수준의 하위체제는 일정한 독자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전체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¹⁾ 변화의 차원에서도 각 하위체제들은 독자적인 변화 성격 및 변화 속도를 갖고 있으며, 때로는 하위체제간의 변화들이 조화로운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위체제 변화들이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전체 사회체제의 변화 양상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²⁾

1) Wilbert E. Moore,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4), pp. 24~36; 사회변화의 다양한 차원에 대해서는 Etzioni, Amitai & Etzioni-Halevy, Eva,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 (New York: Basic Books, Inc, 1973), Part V 참조.

사회체제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의식도 하나의 하위체제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변화과정에서 일정한 정도 독자적인 변화양상을 보이면서 전체 사회체제 변화와 상호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조의 변화가 사회구성원의 사고나 의식을 결정하지만, 반대로 사회구성원들의 의식구조 사고체계도 사회변화의 방향이나 정도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대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나타나는데 사회구조의 변화 못지 않게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 근대인이 되는가의 여부가 근대화의 귀결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³⁾

베버의 자본주의론도 개인적 수준의 의식체계가 사회발전과 밀접함을 주장하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베버는 건전한 부의 축적을 정당화하는 퀘빈주의 전통과 이를 수용한 개신교도의 소명의식이 자본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⁴⁾

사회체제의 변화에서 사회구성원 차원의 변화가 의미를 갖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의식변화가 사회변화를 촉진시키거나 혹은 지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문화체제 혹은 의식체제

2) 오그번(W. F. Ogburn)이 주장하는 문화지체(cultural lag) 이론의 경우 제도적 변화와 문화적 변화의 속도차이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William F. Ogburn, *Social Change* (New York: Viking Press, 1922), pp. 200~212.

3) 잉켈스(Inkels)는 근대인의 형성과 근대화의 상관관계를 근대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동일한 사회구조적 조건에서도 변화의 방향과 속도가 사회구성원의 의식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Inkels, Alex, "Making Men Modern: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dividual Change on Soc Developing Countries," in Etzioni, Amitai & Etzioni-Halevy, Eva,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 pp. 343~361.

4) Max Weber,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alcott Parsons tra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6).

와 사회변동이 어떤 관계를 갖는가 라는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문화구조 혹은 문화의식과 사회변동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예가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다.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근대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촉발된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논쟁에서 아시아적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개인적 가치, 문화구조가 사회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⁶⁾

지금까지 의식체계나 문화체계와 사회변동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근대화 혹은 사회발전과정이라는 특정 시기의 특정한 형태의 사회변동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이후 후기 산업사회의 변화에도 의식체계나 문화체계는 사회의 정치경제적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⁷⁾

개인적 수준의 가치체계나 의식체계 그리고 문화체계의 성격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체제 변화의 과정에서 집단간 의식 차이문제가 사회변화에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인 집단 등 지배집단과 민중과의 의식차이, 정치적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과의 의식차이, 국가구성 집단과 시민

5) Robert Ash Garner, *Social Chang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 1977), pp. 44~47.

6) 한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후발 자본주의화가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유교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힘입었다는 주장에서부터 비롯된 아시아적 가치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지만, 사회체제와 가치체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Alice H. Amsden,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1990); 김대중 외,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1999) 참조.

7) 이에 대해서는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90) 참조.

사회 구성원과의 의식차이는 특정 사회체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양자간의 의식차이가 확대되는 경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또한 민중, 피지배세력, 시민사회의 사회운동을 촉발하여 사회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변동과 의식체계 그리고 집단간의 의식체계의 차이 문제는 사회구조의 차원을 중시하였던 맑스의 계급의식 논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맑스는 구조적 유인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혁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자각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피지배계급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경우에도 지배계급의 의식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한 혁명적 분위기가 고양되기 어렵다는 것이다.⁸⁾ 따라서 계급갈등 과정에서 투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이 일차적으로 자신들이 노동계급이라는 즉자의식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에 더하여 자본가계급이 자신들의 이익과 상치된다는 대자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⁹⁾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기에도 의식차이는 중요한 문제였으며, 노동계급의 계급의식 각성을 우선하였던 로자록셈부르크와 선도적 집단으로서 당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레닌과 갈등이 심각하였던 경험이 있다.¹⁰⁾ 정치적 노선이나 혁명의 실천 방안에 대하여 로자와 레닌 사이의 견해차이는 심각하였지만, 혁명과정에서 계급의식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자가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8) Karl Marx,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허교진 역, 『프랑스혁명 3부작』 (서울: 소나무, 1987), pp. 239~253.

9) "Class consciousness," in Tom Bottomore eds.,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Oxford: Blackwell Pub. 1983), pp. 79~81; George Lukacs,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London: Merlin, 1971), pp. 50~51.

10) Bertram D. Wolfe, "Introduction," Rosa Luxemburg, *The Russian Revolution and Lenin or Marxism?*, 박영옥 역, 『러시아혁명: 레닌주의냐 마르크스주의냐』 (서울: 두레, 1989), pp. 22~26.

다만 결과적으로 혁명과정에서 당의 역할과 당파성을 강조한 레닌이 정치적 승리를 거둠에 따라 이후 국가사회주의에서 당적 지배가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혁명기나 사회주의 국가 건설기에 의식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최근 사회주의체제의 변혁과정에서도 의식체계나 문화구조의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이행기의 러시아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기존의 의식구조와 무관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길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도 전통적인 문화구조와 사회발전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¹¹⁾

이론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개인 혹은 집단 수준의 의식체계나 문화구조는 사회변동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구조결정론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가치관이나 의식체계 그리고 문화구조는 정치경제적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사회발전에 대한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문화나 가치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가치관, 의식체계 그리고 문화구조가 중요하다는 것이며, 최소한 결정요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특정 사회의 변화 방향이나 변화의 수준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식구조와 사회변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차이는 근본적으로 사회변동을 바라보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인식론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본질적으로 사회실재론의 입장에 있는가 아니면 사회명목론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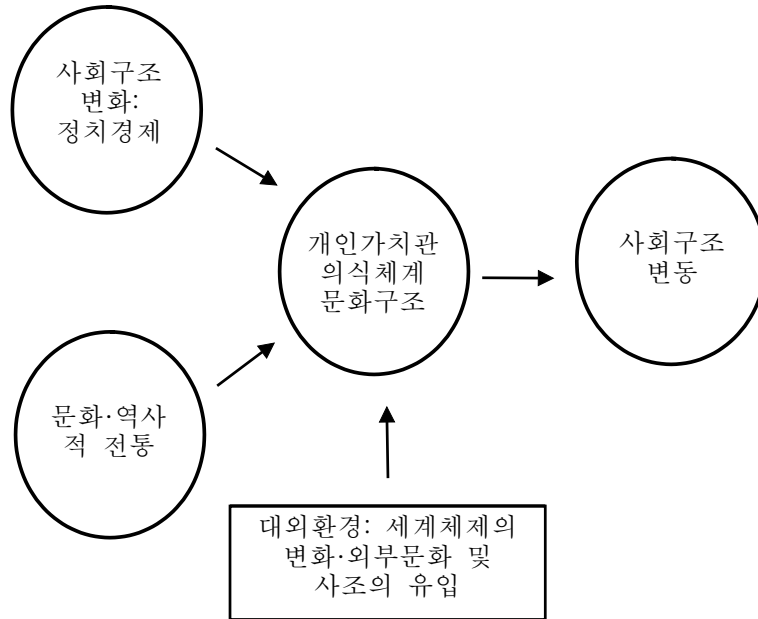
11) 이행기 러시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한범, “이행하는 사회주의 사회,” 박길성 외,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1996) 참조. 중국의 변화와 의식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민호,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의 정치문화: 유교의 역할,”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비교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1997) 참조.

있는가에 따라 사회구조와 사회구성원의 역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사회발전과정에서 가치관, 의식체계 그리고 문화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어떤 시기의 어떤 공간의 사회변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도 의식구조와 사회발전간의 관계는 다르게 주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맑스주의적인 전통에 서있는 학자들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유지라는 차원에 관심을 기울일 경우 문화론적인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¹²⁾ 동양과 같이 전통적으로 문화적 유산이나 가치의 문제를 중시하는 사회의 경우는 사회변화과정에서 의식체계나 문화구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거시적 사회변화의 추세에 대한 일반론적인 관심이 있는 경우나, 개별사회의 특정 시점의 사회변화 양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치관이나 의식체계 그리고 문화구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한 것이 <그림1-1>이다. 각각의 화살표 방향은 분석대상이 되는 사회의 특수성과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2) Richard R. Weiner, *Cultural Marxism and Political Sociology* (London: Sage Pub., 1981) 참조.

<그림1-1> 사회변동과 의식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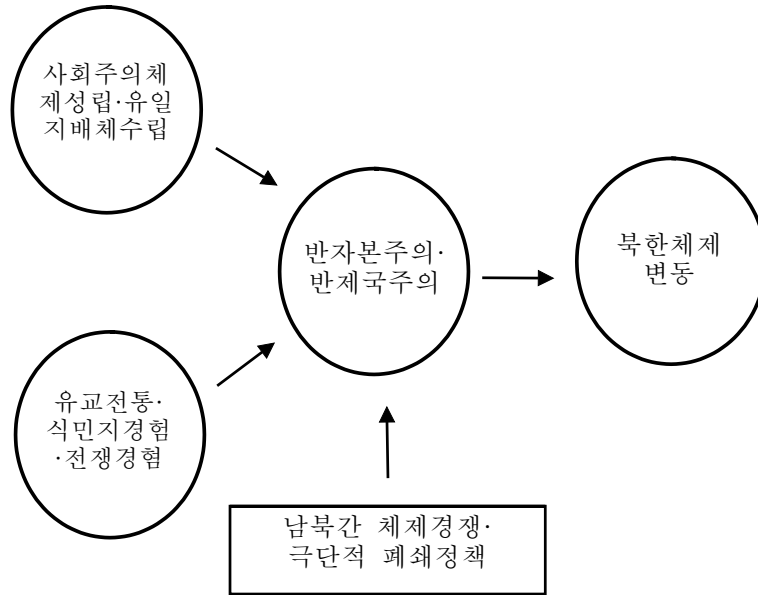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의 보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는 식민지시대의 해방투쟁의 전략으로 선택된 것이었고, 해방이후에는 사회발전 전략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체제이념 자체가 사회구조의 역사발전의 자연적인 소산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사회주체들의 자의적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레닌이 주장한 당우선의 사회주의 건설전략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는 위로부터의 사회주의체제 건설이라는 성향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의 자의적 선택 그리고 위로부터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조건은 북한에서 이념의 선도적 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 유교국가로서의 역사적 경험은¹³⁾ 북한의 사회변화에서 가치관이나 의식체계 그리고 문화구조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회주의가 윤리적 동기유인으로 사회변화의 추동력을 얻고 있는 까닭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과정에서 이념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과 북한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은 북한 체제에서 의식체계와 사회구조 그리고 구조변화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의 의식체계 형성에는 사회구조가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사회구조와 구조변동에 대한 의식체제의 영향력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앞의 도식에 따라 북한의 반 자본주의의식의 형성과정을 정리한 것이 <그림1-2>이다.

13) 유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윤리체계이다. 당연히 유교국가의 통치는 윤리적 규범에 의존하게 된다.

<그림1-2> 북한의 반자본주의 의식 형성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에 대한 분석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현존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로서 남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인식의 전환이 있는가를 중요하게 분석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질적 풍요, 물질적 동기유인, 개인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식체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 활용되는 방법은 설문조사나 심층면접 혹은 텍스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현지조사의 제한성으로 설문조사나 심층면접이 원천적으로 봉

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북한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각종 언론매체와 출판물이 될 수 있다. 남한과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접할 수 있는 텍스트는 다양하며 각 텍스트는 일차적으로 생산자의 의식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생산자가 속한 사회집단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의식체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북한에서 공개되는 텍스트는 다소간 차이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공식적인 견해가 반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⁴⁾ 물론 북한의 모든 텍스트가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정치사회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까닭에 여기서 나타나는 의식체계가 현실적 의식체계라고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철저한 사회통합체제를 고려한다면 공식적인 견해가 의식체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문건을 기본적인 분석대상 텍스트로 삼고자 한다. 북한체제의 기초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저작집과 조선중앙연감,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근로자 등의 언론매체를 중점적인 분석대상으로 하고 자본주의를 다루고 있는 소설과 영화를 보완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또한 공식 텍스트 분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탈북자의 증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4) 북한의 언론이나 공식문건은 말할 것도 없고, 각종 문예작품들도 당의 엄격한 검열을 거쳐야 한다.

II.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특성과 변화과정

1. 북한의 남한체제 인식

가. 기본인식

분단되었다는 것은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지향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확히 말한다면 남한은 자본주의체제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해방이후 각기 사회발전전략으로 선택하였고, 상대방의 체제와 이념을 피차간에 인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체제를 채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경험함으로써 공존의 논리보다는 상호배타적인 적대적인 감정을 내면화하였다. 따라서 남한이나 북한 모두 상대체제에 대하여 극단적으로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토대에서 분단이 장기화되고 체제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상대체제에 대한 비판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이나 북이나 모두 상대체제를 인정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반역의 수준에서 처벌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남한체제를 보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분단 반세기 동안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북한은 극단적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고, 권력구조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지배층은 정치적·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남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증폭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남한체제에 대한 북한의 비판적인 입장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사회주의의 시각에서 비롯된다. 사회주의 이념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하는 남한

체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급적인 착취, 빈부격차 등과 같은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병폐가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된다.¹⁵⁾

그러나 비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남한 비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미국의 지배 상태가 더욱 문제가 된다.

오늘 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 기지로 전변되었습니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있으며 남조선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습니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양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 있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있으며 래일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기약할 수 없는 끝없는 불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¹⁶⁾

남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남한사회의 기본성격을 제국주의 세력인 미국의 신식민지로 파악하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¹⁷⁾ 즉, 미국이 일본에 이어 남한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

15)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으며, 경쟁의 첨예화로 재생산구조는 기형화되면서, 자본의 해외유출이 강화되어 지역 경제는 공동화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자본은 노동생활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일상생활도 지배하며, 인격도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리복희,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경제관계에 대한 연구』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94) 참조.

16)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2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일),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301.

17) 최필원, “남조선에 대한 미제 신식민주의 정책의 반동적 본질,” 『근로자』 (1971. 11), p. 52.

하는 것으로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는 자본주의 체제이지만 신식민지적 지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신식민지적 지배 하에서는 미제국주의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정치경제적 수탈을 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를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 남한의 '과썬적인' 정치지도자들과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탈과 영향에 의해 남한사회의 독자성은 상실되었으며, 남한사회는 극소수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로 구성된 착취계급과 절대다수의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으로 이루어진 계급사회라는 것이다.

나. 분야별 인식

(1) 정치구조

남한의 정치체제를 북한은 독재체제로 규정한다.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노태우정권까지는 '과썬적 군사독재체제'이고 김영삼 정부는 '허울뿐인 민주주의의 문민독재'가 된다. 그리고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이념적 기초는 반공주의가 된다. 반공주의적 독재체제는 체제유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물리적 억압기제를 통하여 민중을 탄압하면서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전쟁의 위협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박정희 《정권》은 비유하면 옛날에 조선사람들이 머리에 쓰던 갓과 같은것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갓은 머리우에 올려놓고 두끈을 매야 유지되는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은 인민들속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허공에 떠있으며 갓과 같이 두끈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끈의 역할은 미제국주의자들이 하고 다른 한끈의 역할은 일본반동들이 합니다. 이 두끈가

운데서 어느 한꺼번 끊어져도 박정희 《정권》은 날아가고됩니다. 다시말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에서 손을 떼거나 일본반동들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박정희 《정권》은 망하고됩니다.¹⁸⁾

미제와 박정희도당은 자기들의 횡포한 과소테로통치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책동을 다하고있으며 특히 《반공》을 중요한 정치사상적수단으로 리용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반공》은 인민들을 탄압하여 정치적반대파를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전쟁소동을 일으키며 동족상쟁을 고취하는데 이르기까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의 약》으로 되고있습니다. 《반공》의 간판밑에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이 벌어지고있으며 또한 《반공》의 간판밑에 일본군국주의의 남조선재침략이 허용되고있으며 수많은 청장년들이 남부베트남의 죽음터로 끌려가고있습니다.¹⁹⁾

더욱이 남조선은 외국군대가 강점하고있고 전쟁연습소동이 그 칠새없이 벌어지는 지역이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여지없이 말살되고 군사과소독재와 민주세력사이의 대결과 투쟁이 격화되어 정치정세가 매우 불안정한곳입니다.²⁰⁾

남조선의 이른바 문민정권이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역대군부독재정권과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과 각계인사들이 현 남조선 정권에 대하여 더 이상 지켜볼것도 없고 기대할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응당한 일입니다.²¹⁾

18) 김일성, “조선의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 1978년 6월 15일, 『김일성저작집』 33권 (평양: 조선로동출판사, 1987).

19) 김일성,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6월 30일, 『김일성저작집』 2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0) 김일성, “네팔신문 <아스티토> 책임주필과 <아크바르>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87년 7월 23일, 『김일성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1) 김일성, “신년사,” 1994.

북한은 남이 독재체제를 갖게 된 것은 제국주의 미국의 남한 지배 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한다. 즉, 미국의 식민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에 독재체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의 독재체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이며, 남한 내에서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대신하는 지배세력은 파쇼세력이 된다. 이와 같은 파쇼세력의 핵심은 박정희 정권이라 군부세력이 된다.

북한은 미국과 남한 지배층 그리고 이들이 만든 독재체제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지만, 이들의 억압을 받고 있는 일반 민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즉, 미국의 지배정책을 대항하는 정치지도자나 일부 집단은 문제가 있으나 다수의 남한주민들은 착취의 대상으로 구원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²²⁾ 마찬가지로 차원에서 남한체제가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모순도 미국에 의하여 이식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배고리만 끊어지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사회주의체제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은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빼앗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을 더 빨리 각성시키고있으며 그들을 강력한 반항으로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탄압이 있으면 반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탄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곳에서는 혁명이 일어나는 법입니다.²³⁾

22)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부분의 문건에서 남한주민들에 대한 배타적이거나 적대적인 표현은 거의 없다.

23) 김일성,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

(2) 경제구조

북한은 남한을 미국과 일본에 예속된 경제체제로 보고 있다. 남한의 예속경제체제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예속된 남한경제는 수탈의 대상이기 때문에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추진하지 못한다.

남조선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미, 일의 다국적 기업체들... 오늘 남조선의 경제는 완전히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어 있습니다.²⁴⁾

예속적인 경제체제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고리는 외자도입이다. 외자의 도입과 이에 대한 의존은 자립적 경제구조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구조적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²⁵⁾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일본의 자본을 중심으로 예속적 경제체제가 확립되었으며,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즉, 산업화초기 시절의 외자 도입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 남한경제의 위기에서 비롯된 IMF 체제도 근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에의 예속성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²⁶⁾

제국주의의 수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착취가 가속화된다. 특히 정치적 지배세력인 파쇼집단은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동시에 예속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제국주의 수탈을 확대하기

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24) 『로동신문』, 1985. 1. 11.

25) 손종철, “남조선 경제과국은 외자도입의 필연적산물,” 『경제연구』 (1988 3호).

26) 황순화, “남조선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구제융자>의 침략적, 약탈적 성격,” 『경제연구』 (1999 4호), p. 54.

위하여 일반 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남한 경제는 민족모순(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이익과 남한의 경제적 이익간)과 계급모순(파쇼세력과 피착취 민중간)이 중첩되어 있는 불안한 구조가 된다.

예속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까닭에 경제발전이나 산업구조는 파행적일 수밖에 없다. 개별 기업도 외국 자본에 종속되어 있으며, 일차산업은 와해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지배는 지난날 일제국주의의 통치와 본질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남조선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침략적 군사기지로 전변되었습니다. 남조선의 민족공업은 외국자본의 예속경제로 전변되고 있으며 남조선 농업도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²⁷⁾

(3) 사회구조

사회적으로는 불평등구조가 심화된 체제로 남한사회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일반 노동자들은 취직난과 실업난과 주택난에 고통을 받고 있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공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복지제도는 취약해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일상적인 삶은 부패심화로 인해 부조리와 비리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이다.

27)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2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1967년 12월 16일), 『김일성 저작선집』 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p. 541.

남조선 도시 주민들의 심각한 주택난²⁸⁾

20세기말의 인간생지옥 남조선은 실업의 왕국²⁹⁾

얼마전에 괴뢰내무부는 홍청망청 무위도식이 7만명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소수 특권존속들이 만들어 놓은 호화무덤은 그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옛날의 왕릉을 무색케 하며 그것은 놈들의 극단에 이른 범죄적 낭비와 절망적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³⁰⁾

계급적 불평등 구조와 열악한 일상생활은 자본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특히 남한의 경우는 미국에 의한 식민지적 지배체제로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속 경제체제 아래에서 제국주의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노동자·농민에 대한 착취가 불가피하며 결과적으로 대다수 민중들은 저임금으로 열악한 생활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국주의 종주국의 이익을 창출하는 파쇼지배세력들은 반대급부로 풍족한 삶을 영위하며 결과적으로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들 자신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혁명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파쇼세력이 철저하게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³¹⁾ 따라서 남한체제의 사회적 모순관계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28) 『로동신문』, 1980. 3. 15.

29) 『로동신문』, 1982. 1. 26.

30) 이정근, 『남조선사회는 부인부, 빈익빈의 반인민적 사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부, 1989), pp. 30~36.

31) 김일성,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1974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4) 문화생활

미국에 예속된 신식민지적 상황이 두드러지는 것은 문화체계이다. 미국과 일본의 외래문화가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민족문화는 상실되었으며 개인들은 황금만능주의에 빠져, 사치와 향락에 몰두하게 된다.

미제는 조선의 자주독립을 영원히 억제하고 민족문화와 민족예술을 근본적으로 말살하려고 기도하였다. 오늘 남조선에는 일제잔재의 노예적 식민지 예술과 미국식 퇴폐적이고 망국적인 예술이 횡행하고 있으며 진보적 예술가들은 체포 구금 추방되었으며 일제시에 황도정신을 구가하던자와 미국의 식민지정책을 찬양하는자만이 미제와 남조선괴뢰정권의 애호를 받고 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에서 자기들의 세계침략의 사상적도구로 코스모폴리티즘의 독소를 예술면을 통하여 광범히 살포하고 있다. 문화기관들이 인민의 소유로 되는 것을 저해하기 위하여 전일 본인의 소유였던 남조선의 극장과 영화관들을 모조리 친일파 모리배들의 개인소유로 넘겨주었다... 미제는 그들을 통하여 할리우드의 퇴폐영화를 남조선에 마음대로 범람시키고 있다... 또한 그들은 일제이상의 혹독한 검열제도를 만들어 조국을 사랑하고 진리를 찾고 침략자를 증오하는등의 애국적사상이 조곰이라도있는 일체의 연예물은 절대로 금지하고 있다.

미제가 비호육성하고 있는 예술부면을 보면 조선의 민족생활을 부패와 타락에로 인도하고 개인적 테로와 불화와 질투를 장려하는 저속하고 야비한 미국식문화를 강요하고 있다... 애국사상을 마비시키는 우매하고 에로틱한 각본들을 경쟁적으로 상영하고 있으며, 미국영화를 비롯한 영국 불란서 중국 등 4개국의 영화들이며 이는 관중들에게 살벌과 성적충동과 스틸의 쾌감밖에 주는 것이 없을뿐더러...³²⁾

32) 『조선중앙연감』, 1950, pp. 373~374.

도덕적 타락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라체질주, 여자레스팅, 여자축구, 여자권투와 같은 해괴망측한 놀이”를 하고 있으며³³⁾ “떨쩍한 남자들이 여자옷을 입고 머리를 기르며 여자구두를 신고 목걸이를 걸고다니며 반대로 여성들이 남자옷차림을 하고 다니는가하면... 심지어 얼굴형태까지 미국놈처럼 만들기 위하여 코를 크게 만드는 것과 같은... 말세기적 생활풍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³⁴⁾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여성들중에는 영치를 가리울 정도의 이른바 미니스카트라는 것을 입고 젓가슴이나 겨우가리우고 거리를 싸다니고있는 낫도깨비들도 적지 않고,”³⁵⁾ 젊은 여성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양춤장과 유흥가에서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³⁶⁾ 이러한 차원에서 남한의 문화는 한마디로 ‘말세기적’인 것이 된다.

북한은 남한문화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독자적 성격이 없다는 것에 있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미국문화에 종속되어 있으나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로는 일본문화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남한문화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에로티시즘이 중심이고, 영화의 경우 ‘색정주의’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미술은 나체화가 횡행하고, 무용은 여성의 상품화를 대변하고, 대중가요도 선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문학예술인들과 그들의 작품은 진보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한다.

33) 『조선중앙년감』, 1977, p. 278.

34) 『조선중앙년감』, 1976, p. 428.

35) 홍성락,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양풍양화의 썩어빠진 풍조,” 『근로자』 (1974. 7), p. 62.

36) 서치열, “남조선에 류로되고 있는 미국식 생활양식의 해독적 후과.” 『근로자』 (1987. 12), p. 83.

남조선의 반동적 문단과 무대에는 반공의 간판아래 인간 증오와 침략전쟁 사상을 고취하는 항전의 문학, 생에 대한 허무와 방탕과 죽음을 설교하는 실존주의 문학, 추악한 색정 세계와 썩어빠진 시정 생활의 단면을 묘사하는 이른바 자연주의 문학예술이 범람... 4월봉기를 계기로 활발하였던 진보적 경향의 문예활동은 군사 정변후 극도로 위축되었고... 허무와 색정주의 및 전쟁 소동을 고취하는 이 모든 추악한 무리들과는 반대로 오늘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 예술인들은 미제와 군사정권에 대하여 비협조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반동적 문예정책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³⁷⁾

2.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가. 기본인식

남한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원천적으로 비판적이다.

자본주의사회는 자주성에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사회이며 계급적지배와 민족적압박을 결합시킨 횡포한 억압사회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소수의 지주, 자본가들은 근로인민대중을 제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인민대중은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와 자유도 못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에 참가할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은 물론 자기의 정치적의사를 발표할 수 있는 가장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가지고있지 못하며 그들에게는 오직 착취계급에게 순종할 의무만이 있다.³⁸⁾

37) 리상현, “최근 남조선문학예술의 경향성,” 『근로자』 (1962. 12), pp. 33~35.

경제적으로는 소수의 지배계급이 노동자·농민에 대한 착취를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억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계급적 갈등이 격화되고 피지배계급은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반면에 지배세력인 자본가 계급은 노동계급과 함께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계급이지만, 착취적 본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격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자본가들은 상호 경쟁을 통하여 중소자본가는 몰락하고 대자본가가 생존하게 되는데, 자본주의가 발전한 제국주의 단계에서는 금융자본가를 거쳐 독점자본가가 핵심계급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자본가와 독점자본가는 국내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뿐만 아니라, 식민지 예속국가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는 동시에 군비경쟁 및 침략전쟁을 지향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의 반동적인 대내외정책을 조정한다. 현 단계에서는 미국이 중심세력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미국의 독점자본가의 이해에 따라 세계체제는 정치경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구조는 자체 모순이 심화되어 역사발전에 따라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고, 결국 사회주의로 이행된다는 것이다.³⁹⁾

나. 시기별 자본주의 인식 변화

(1) 1945~1950년대

건국 이후 1950년대까지의 시기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건설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쟁을 경험하였고, 전후 복구에 매진하였던 시

38) 『백과전서』 4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3), p. 172.

39) 『정치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710~712.

기이기도 하다. 이 기간에 북한의 자본주의관의 초점은 사회주의체제가 본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두어졌다고 볼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이념 갈등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주의체제가 자본주의체제 보다 앞선 단계 이념체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의 포성이 멎은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은 정치경제적으로 심히 약화되고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망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반동적통치체제가 혼란되고 경제가 침체상태에 빠져들어가고있습니다.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노동조건 개선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고있으며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진출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습니다. 이 모든것은 자본주의제도가 근저로부터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⁴⁰⁾

자본주의사회는 사회발전단계로 볼 때 사회주의사회보다 한단계 뒤떨어진 사회입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같이 일하고 다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는 착취와 압박이 지배하며 근로자들이 정치적무권리와 빈궁 속에서 허덕이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가장 발전되었다고 하는 미국에도 일자리가 없고 먹을것이 없어 거리를 헤매는 실업자들과 거지들이 많습니다.⁴¹⁾

40) 김일성, “현 국제국내정세와 녀성들의 과업: 평양시 녀성일군들앞에서 한 강연,” 1945년 10월 25일, 『김일성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41) 김일성,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자: 제7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59년 7월 1일, 『김일성저작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자본주의체제이념이 열등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적 침체와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피착취계급은 정치적으로도 억압받고 있으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서 자본가 등 지배계급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온갖 향락을 누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체제의 사회구조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상업과 자본주의상업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첫째로, 사회주의상업은 근로자들의 복리증진과 생활상편리를 위해서 복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 상업의 목적은 근로자들을 기만하고 착취하는데 있습니다. 둘째로, 자본주의상업은 도시에 집중되어있는 자본가들의 향락에 복무하기 위하여 도시에만 편중하지만 사회주의상업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는데 이바지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평양에 있는 상품이 백두산밑에도 다 가있고 물건값도 평양이나 백두산밑이나 똑 같습니다. 셋째로, 사회주의상업은 계획적으로 생산한 상품을 계획적으로 공급하지만 자본주의상업에서는 자본주의생산이 무정부적인 것처럼 상품의 공급과 소비도 역시 무계획적입니다... 끝으로, 자본주의상업의 리윤은 전적으로 자본가들의 치부에 돌려지지만 사회주의상업의 리윤은 전체 인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을 위한 축적에 돌려집니다. 이것이 또한 사회주의상업과 자본주의상업의 본질적차이의 하나입니다.⁴²⁾

북한의 자본주의관은 남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평등, 착취는 남한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치품과 같은 물질

42) 김일성,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상품류통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6월 7일,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적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지주, 자본가 관료들의 것이며 대다수의 민중들은 헐벗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서울에 화장품이나 사치품 같은것은 많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돈이 많고 호화롭게 사는 지주, 자본가들과 관료배들에게나 필요한것이지 헐벗고 굶주리는 로동자, 농민들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는것입니다. 남조선에 대학이 여러개 있지만은 돈없는 사람은 대학에 다니지 못하며 간혹 대학을 졸업한다 해도 일자리를 얻을수 없습니다.⁴³⁾

1950년대까지의 북한은 자본주의체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강조하면서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기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이념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하여 이론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체제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전쟁으로 피해를 입었고, 전후복구에 여념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당시에 남한의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고 체제가 불안정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1960년대

1960년대 북한은 전후복구와 사회주의 체제 건설이 어느 정도 일 단락 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유일지배체제가 확립된 반면, 중소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등 주변정세는 다소 복잡성

43) 김일성, “제7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59년 7월 1일, 『김일성저작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을 떠던 기간이었다.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는 2차세계대전의 복구가 완료되고 자본주의 국제시장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경제적 호황을 맞고 있었다. 이 시기 남한은 4·19와 5·16을 거쳐 비로소 산업화를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정책은 국가주도의 해외의존형으로 1963년의 한일국교 정상화를 통하여 구체화되었다. 남한이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어 해외의존형의 전략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1960년대의 상황에서 북한의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시기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체제가 완성됨에 따라 제국주의 중심의 경제적 구조가 주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된다.

후진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화정책은 신식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는 《후진국공동개발》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원조》 정책을 해외팽창의 중요한 도구로 삼고있으며 이른바 《원조》를 통하여 독점자본의 해외침투의 길을 개척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거액의 자본수출과 여러가지 식민지리권에 의거하여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경제의 명맥을 자기의 손아귀에 틀어쥐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독점자본은 이 나라들의 풍요한 자원과 근면한 이 나라 인민들의 로동의 열매를 계속 가혹하게 약탈하여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경제원조》를 통하여 뒤떨어진 나라들의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을뿐아니라 이 나라들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며 정치적독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있습니다. 경제적침투와 함께 사상문화적침투도 신식민주주의의 중요한 수법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평화군》, 《아프리카십자로계획》과 같은 미명밑에 일련의 나라들에 대한 반동적인 사상문화적공세를 강화함으로써 이 나라 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혁명의식을 마비시키

며 그들속에 숭미반공사상을 고취하고 민족허무주의를 주입하며 썩어빠진 양키식패륜패덕을 부식하고 《평화》의 간판뒤에 숨어서 파괴와해책동을 계속하고있습니다.⁴⁴⁾

자본주의의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제국주의의 제3세계 침탈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예측화가 더욱 문제로 보고 있다. 경제적 예측은 정치적 예측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상문화적 침투가 병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주의의 특성은 제국주의의 중심인 미국의 이익을 구현시켜주는 데 있다고 본다.

제국주의적 질서와 더불어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와 빈부격차를 주요한 문제로 강조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와는 정반대로 부르조아사회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이익, 자기의 공명, 자기의 출세, 자기의 자본을 위하여, 자기 혼자 잘먹고 잘살기 위하여 애쓰도록 교육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자기 혼자만 잘살고 출세하면 되고 자기 주머니에만 돈이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자본가가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중농이 되었다가 부농이 되고 또 지주가 되겠는가 하는데만 머리를 쓰게 만들고있습니다.⁴⁵⁾

44) 김일성,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한 축하연설,” 1969년 9월 18일, 『김일성저작집』 2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45) 김일성,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교육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8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남한체제에 대한 비판도 1950년대까지는 빈곤과 착취와 같은 요소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1960년대에는 제국주의체제에 예속된 상황이 상대적으로 중심이 된다. 빈곤이 미국에 대한 예속경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도 비참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전쟁에의 참전과 해외의존형 산업화에 따라 자본주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여자들이 속에 헌옷을 입고다니면서도 얼굴에는 연지를 시뻘겍게 바르고 다니는데 여기 여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조선여자들이 왜 그렇게 하고 다니는가고 물으니 그는 말하기를 여자들이 생활이 너무 어려워 자기의 몸까지 팔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남조선청년들이 미제의 대포밥으로 남부 월남전쟁터에 끌려가는것도 남조선에 있으면 굶어죽겠기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하여 돈에 팔려간다는것입니다. 그러니 남조선현실이 얼마나 비참합니까?⁴⁶⁾

1960년대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은 여전히 비판적이지만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체제가 비판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모순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발전에 따른 상황변화 그리고 남한의 산업화 진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의 공고화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전히 북한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지만 남한도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이 시기 북한 자본주의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46) 김일성,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찰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인테리들앞에서 한 연설,” 1968년 6월 14일,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3) 1970년대

1970년대 북한은 유일지배체제가 더욱 공고화되고, 사회주의적 산업화가 일정한 한계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였다. 반면에 남한은 1960년 이래 시작한 산업화가 일정한 성과를 두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급격한 산업화에 따라 빈부 갈등과 같은 부작용도 표출되고 있었다. 7·4공동성명으로 잠시 남북한간에 화해분위기가 고양되었으나, 다시 냉각기로 들어섰고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확립하여 억압적 국가지배를 한층 강화하였다.

1970년대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도 여전히 부정적이며, 문제의 근원은 제국주의적 지배체제에 있다.

자본주의길은 착취와 압박, 예속과 몰락의 길입니다.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이 자본주의길로 나아간다면 착취와 압박을 없앨수 없으며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오직 사회주의길로 나아가야만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할수 있습니다.⁴⁷⁾

또한 자본주의체제가 일정한 부의 축적을 이루고 있으며, 물질적인 풍요가 보장된 것 같으나 이것은 소수 자본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사회는 얼마 안되는 돈있는 사람만이 잘살수 있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상점마다 상품이 가득하여 얼핏 보기에는 모든것이 풍족한것 같지마는 절대다수 근로자들은 돈이 없

47) 김일성, “뽀루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과 한 담화,” 1973년 9월 15일, 『김일성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기때문에 상품이 아무리 많아도 살수 없으며 헐벗고 굶주리지 않으면 안되는것입니다.48)

자본주의사회는 지주, 자본가를 비롯한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을 억압착취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력과 사회의 재부가 다 소수의 특권계급의 손에 장악되어있고 근로대중은 아무런 권리와 재부도 가지고있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놀고먹는 착취계급은 점점 더 호화롭게 살고 부유해지지만 피땀을 흘리며 일하는 근로대중은 날이 갈수록 가난에 쪼들리게 됩니다. 또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허위와 기만, 사기와 협잡이 판을 치며 돈이 모든것을 지배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가장 반동적인 사회이며 썩고 병든 사회입니다. 오늘 자본주의는 인류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사회적진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49)

착취와 불평등 그리고 예측경제 체제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영속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절대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있을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말로는 《만민의 평등》이요, 《개성의 자유》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실지에 있어서는 전혀 실현될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이 소수 자본가들의 손안에 들어있고 돈이 모

48) 김일성,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전국상업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9월 15일, 『김일성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49) 김일성,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과학교육및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억만장자들과 가난한 근로인민들 사이에 어떻게 평등이 있을수 있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조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⁵⁰⁾

남한사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적이지만 남한사회가 이룩한 경제적 성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인식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한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체제가 원래 의미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예속경제하의 왜곡된 자본주의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요한 비판은 민족경제 혹은 자립경제의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남조선을 완전히 자본주의사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대독점자본가들은 없고 있다고 하면 매관자본가들이 좀 있을따름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관자본가들을 반대합니다. 매관자본가들은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장애로 되기때문에 우리가 반대하지만 민족자본가나 중소기업가들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사회는 자본주의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하겠는지, 자본주의를 동경한다고 하겠는지 아니면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고있거나 자본주의를 신봉한다고 하겠는지 하는 정도의 사회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남북간에 제도상차이가 없다는것은 아닙니다.⁵¹⁾

50) 김일성,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2월 15일, 『김일성저작집』 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51) 김일성,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972년 5월 26일,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1970년대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은 이전 시기와 기본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자본주의의 물질적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일정한 부의 축적과 사회적 풍요를 이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문제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평등이 실현 되는 것이고, 국가 단위에서는 민족성을 유지하고 자립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된다. 같은 맥락에서 자본가도 민족자본가나 중소기업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70년대 들어서서 북한이 점차 사회주의 이념 자체 보다는 주체사상을 핵심이데올로기로 부각시킨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이 이룩한 경제적 성장의 성과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의 비판적 시각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 1980년대

1980년대는 남북한은 모두에게 전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남한은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고 1980년 봄의 민주화 투쟁이 군부에 의해 좌절되고,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체제가 지속되었던 시기였다. 정치적 격변 그리고 오일쇼크의 여파 등으로 1980년대 초에는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였으나, 중화학 공업으로 주력 산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개편되면서 경제적 도약을 하였던 시기였다. 또한 1987년의 시민투쟁으로 30년에 걸친 군사정부가 몰락하에 되었으며, 1988년 올림픽 개최는 남한체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후반부터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었던 북한은 1980년에 들어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면서 체제를 정비하고, 숨은 영웅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발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과는 미미하였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들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의 몰락과 중국의 개혁개방 가속화는 북한체제가 위기를 경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오일쇼크로 비롯된 경제 침체를 경험하면서 미국(레이건 정부), 영국(대처정부) 등 주요 국가들에 신자유주의 조류가 팽배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지속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하였다.

1980년대 초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는 북한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증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 오래전에 시작된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경제위기는 날을 따라 심화되고있으며 그것은 새 세계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고있습니다. 지난 시기의 역사를 보면 독점자본가들은 저들이 겪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곤하였습니다.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는것은 독점자본가들이 늘 쓰는 수법입니다. 독점자본가들은 전쟁을 일으켜야 군수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 돈을 많이 벌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대통령 레간이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정책을 강화하고있는데 그것은 경제위기로부터의 출로를 전쟁에서 찾으려는 미국독점자본가들의 요구를 배경으로 하고있습니다.⁵²⁾

52) 김일성, “유엔무역개발회의 총서기일행과 한 담화,” 1984년 3월 15일, 『김일성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비록 북한체제도 위기를 겪고 있었지만 자본주의진영은 전통적인 맑스주의적 시각에서 전망하였던 독점자본가가 지배하는 제국주의체제의 모순이 심화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보수적 정권의 등장과 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압력 증대와 같은 긴장고조 정책은 체제위기를 전쟁을 통하여 해소한다는 자본주의관과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체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혁명의 기운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북한에서는 자본가들의 노동자 포섭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자본가들은 매우 교활합니다. 자본가들은 저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별짓을 다합니다. 자본가들은 로동계급속에서 로동귀족을 키워가지고 그들을 내세워 로동운동대렬을 와해시키려고 책동합니다. 지금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혁명이 일어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⁵³⁾

그러나 1980년대 초반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위기는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점차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북한의 경제적 침체는 반전의 가능성을 보이지 못하였고,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이 시작됨에 따라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북한의 견해도 변화를 보이게 된다.

구라과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는 다른 나라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⁵⁴⁾

53) 김일성,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뻘루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대표단과 한 담화,” 1983년 6월 30일, 7월 1일, 5일, 『김일성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4) 김일성, “짐바브웨국회대표단과 한 담화,” 1987년 1월 19일, 『김일성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970년대에 제국주의체제에 봉사하는 독점자본가와 이에 대비하여 민족자본가 및 중소자본가로 나누어 후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던 북한은 1980년대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바람직한 자본주의 국가와 제국주의적인 그래서 타도의 대상이 되는 자본주의 국가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민족자본가와 중소자본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이라기보다는 이들이 자주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반면에 바람직한 자본주의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체제 자체에 대한 인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자본주의를 수용한다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본주의체제도 바람직할 수 있으며, 따라서 바람직한 자본주의체제와는 공존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 혹은 체제에 대한 인정에도 불구하고 남한체제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정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두환이 남조선인민들앞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수많은 인민들을 학살한데 대하여 사죄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두환은 광주인민봉기때에 술한 사람들을 학살하였으며 광주인민봉기와 관련시켜 민주인사 김대중에게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⁵⁵⁾

남조선인민들이 것처럼 증오하는 군사파쑈독재자인 전두환⁵⁶⁾

55) 김일성, “일본사회당대표단과 한 담화,” 1984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56) 김일성,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81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3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남조선사회가 가장 분동적이며 부패한 사회라는 것은 또한 인민들에 대한 과소적 폭압이 전례없이 강화되고 있는데서 나타나고 있다... 폭압력량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고 인민들에 대한 과소적 탄압도 날을 따라 강화하고 있다.⁵⁷⁾

남한의 군사정부는 광주에서 사람들을 학살하였고, 박정희에 이어 군사과소집단이라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억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은 억압적 정치구조로 이 시기 남한체제를 보고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체제의 경제적 침체와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대내외적인 상황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가 몰락한 반면 상대적으로 위기를 해소하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보면서 자본주의 몰락의 시나리오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체제의 본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 않으나 1980년대 초반까지 나타나던 자본주의 멸망에 대한 기대는⁵⁸⁾ 더 이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적인 조건과 더불어 경제적 침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고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던 정책변화도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970

57) 최태진, “남조선사회는 가장 반동적이며 부패한 사회,” 『근로자』 (1988. 7), p. 89.

58) 자본가계급의 유화정책에 따라 혁명적 의지가 봉쇄되고 있다는 1980년대 초반 인식은 그람시를 비롯한 문화적 맑시스트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지배이데올로기론(dominant ideology thesis)으로 맑스주의 진영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Abercrombie, N., Stephen Hill, Bryan S. Turner,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참조. 지배이데올로기론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체제가 붕괴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년대부터 외채위기를 경험하였던 북한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총련을 중심으로 합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인식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김일성의 연설에서 자본주의 관련 언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0년대는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III.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

1. 1990년대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1990년대는 북한으로서는 건국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은 사회주의 국제경제체제에 의존하였던 북한으로서는 결정적인 타격이었고, 자연재해와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체제 존망의 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외적으로는 미국과 핵을 둘러싼 갈등 상태였고, 남한과의 냉전구조도 심화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로의 권력승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사회주의적 대가정’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고난의 행군’으로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에 남한체제는 직선제 개헌을 쟁취한 1987년의 성과가 김영삼 문민정부의 등장을 거쳐 역사적인 평화적 정권교체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는 등 민주화가 진전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산업사회를 거쳐 부분적으로 탈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로 진입하였다. 또한 1998년 IMF 체제를 맞는 등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표출되기는 하였지만,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극심한 경제위기를 경험하였지만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핵심인 미국은 1980년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호황을 구가하면서 세계경제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였다.

1980년대 북한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면 1990년대에는 자본주의체제에의 편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날 사회주의시장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대외무역에서 사회주의시장을 기본으로 하고 자본주의시장을 보조적으로 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대외무역을 자본주의적방법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무역을 사회주의적방법으로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시장을 대상하여 무역을 하여야 하는것만큼 우리도 무역방법을 그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화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대담하게 진출하며 대외무역에서 전환을 일으킬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⁵⁹⁾

국가사회주의 몰락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생존을 위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비록 사회주의적 방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무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인정과 부분적인 수용은 지극히 제한된 범주, 정확히 말한다면 대외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나 이념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적 요소는 북한식 사회주의 건설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인주의, 리기주의는 자본주의를 조장시키는 병균과 같습니다. 개인주의, 리기주의가 자라나면 자본주의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지금 어떤 나라들에서는 사람들이 개인리기주의에 물젓어 돈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되여가고있으며 교원들도 수업이 끝나면 돈벌이를 위하여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가보고 온 우리 일군들은 한결같이 우리 나라가 제일

59) 김일성,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1년 11월 23, 26일, 『김일성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이고 우리 당 정책이 가장 정당하다고 하고있습니다. 사람이 돈에 맛을 들이면 혁명성을 발휘할수없고 혁명적의리도 지킬수 없으며 나중에는 나라도 팔아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에서는 사람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 사상에 물젖지 않도록 교양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⁶⁰⁾

마찬가지 맥락에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은 구조적인 차원보다는 일상생활의 문제로 초점이 옮겨진다. 빈부격차 등 계급갈등을 핵심적인 문제로 부각하면서 특히 자본주의체제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행복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미국이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그 나라는 빈부의 차이가 많고 사회적불평등이 심하며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썩고 병든 나라입니다. 미국에서는 잘사는 사람들은 호화롭게 살지만 반면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고 집이 없어 거리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살인과 강도, 마약중독자와 알콜중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에이즈병이 제일 많이 퍼져있는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미국식민주주의는 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민주주의입니다. 이자리에 미국에서 온 동포들도 있는데 미국의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미국식민주주의를 본따려 하는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⁶¹⁾

60) 김일성, “함경북도당위원회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함경북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1992년 9월 4일, 『김일성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61) 김일성,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8월 18일, 『김일성저작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자본주의 체제내 사람들의 불행함은 과거에도 있었던 것이지만, 그 동안의 관심은 노동자와 같은 피착취계급의 경제적 열악함에 중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범죄나 마약중독 그리고 에이즈 등은 계급적 문제가 아니라서 기존의 비판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계급적 관심이 유지되고 있으나 계급적 문제가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과거에는 자본주의체제의 문제가 제국주의의 지배, 착취와 빈부격차에 있다고 본 반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이에 더하여(혹은 이보다도 더) 불행한 일상생활이 문제라는 것이다.

남한사회에 대한 인식도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제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에서부터 있었고, 연방제는 제한적이라고는 하나 남한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전 시기에 민족자본가가 중소자본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일반론의 차원이었다. 그러나 다음의 글에서는 남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남한의 양식적 자본가계급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적화통일》을 하려고 한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헐뜯고있는데 우리는 결코 남조선을 《적화》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련방제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국을 통일하자는것이 남조선을 사회주의화하자는것이 아닙니다. 남조선에서 사회주의를 실시하자면 남조선사람들이 그것을 자기의 리념으로 받아들이고 지지해나서야지 억지로 내리먹이는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을 통일한 다음에도 남조선에서 자본주의를 하든, 반자본주의를 하든 상관하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남조선의 자본가들을 덮어놓고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전에 문익환

목사가 평양에 왔을 때 그에게 우리의 련방제 조국통일방안에 대하여 말해주었더니 그는 련방제를 찬성한다고 하면서 련방제를 실시하면 남조선의 자본가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자본가들을 다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인민들을 못살게 구는 악덕자본가만 반대한다, 지금 남조선청년학생들이 악덕자본가를 타도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투쟁하고있는데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악덕자본가만 반대하지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바라는 민족자본가는 배척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해방직후부터 일관하게 견지해오는 립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해방후 평양에 개선하여 한 연설내용을 말해주었습니다.⁶²⁾

IMF체제를 맞이한 남한에 대한 비판이 여전히 여전하고, 남한식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도 변함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연방제나 양심적인 남한 자본가계급에 대한 인정이 통일전선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인정의 정도가 다소 구체적이었다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수용 그리고 자본주의 비판에서 체제 문제보다는 삶의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 그리고 남한체제에 대한 부분적인 인정은 1990년대 북한의 위기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 몰락이후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은 불가피하였고, 더욱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음에 따라 부분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의 부분적인 수용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여주는 근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태도도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50년대나 1960년대의 자본주의

62) 김일성, “조선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재미교포녀류기자와 한 담화,” 1994년 4월 21일, 『김일성저작집』 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체제 비판은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자신하는 바탕에서 이루어졌다면 1990년대 비판은 다분히 수세적이다. 즉, 자본주의 사상문화의 유입을 전제로 하고 이를 경계하는 입장에서 자본주의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최근 문학예술에 나타난 자본주의 인식

북한의 문학예술은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을 기계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⁶³⁾ 따라서 문학예술 작품에 나온 사회현상이 북한의 현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실주의나 주체사실주의 모두 사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현상을 바탕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전선동의 매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문학예술을 통하여 북한체제가 공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인식체계를 인식하는 동시에, 사실주의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들의 인식체계를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북한 문학예술 작품들은 자본주의관의 변화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텍스트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체제를 부분적이거나 인정하고 제한적으로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공식적 인식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3) 북한 문학예술의 역할과 기본 특성에 대해서는 이우영,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2000) 참조.

가. 자본주의 체제 이해

북한체제나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의 기본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경쟁체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무한경쟁체제에 편입한 이상 사회주의도 경쟁을 통하여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인간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에서도 철저하게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나라 중개업자들인 것 만큼 명백하게 호경기를 맞고 있는 회사를 주문에 의해 먼 출장길을 떠났으리라고 믿었다.⁶⁴⁾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악랄하고 횡포한 도전속에서 총포성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소.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노예가 되고 마느냐는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단 말이오.⁶⁵⁾

경쟁체제에 돌입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해 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기업관리나 작업과정에서도 이윤추구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기업관리, 그것은 곧 원가이며 리윤이었다. 국가에 리익을 주게 될 것인가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인가, 공장, 기업소 일꾼들은 무슨일을 하나 해도 언제나 이것부터 생각해야 했다.⁶⁶⁾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체제의 편입은 불가피하게 자립경쟁의 원칙과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즉, 내적인 발전 보다 국제적 경쟁체제에서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외화 획득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다.

64) 신용선, 『지금은 봄이다』 (평양: 평양출판사, 1999), p. 80.

65) 위의 책, p. 102.

66) 김문창,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p. 83.

자력갱생, 간고분투라는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공장에 대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라고만 요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⁶⁷⁾ 외화를 벌어야합니다. 외화만 가지면 전국을 비롯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소소한 물자들을 사올 수 있습니다.⁶⁸⁾

자본주의체제에 대하여 비판적이라고 할 지라도 위의 소설들에서 보여지듯이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본주의적 생활이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동과정이나 기업활동에서는 이윤의 추구가 중요하고, 국가적 단위에서는 외화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윤의 추구가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이윤추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나 이윤추구와 같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행위양식이 구현되고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체제의 효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풍요

자본주의가 지향하는 바는 물질적 풍요라고 할 수 있다. 물질적 풍요는 물질적 동기유인으로 자본주의체제가 유지되는 중요한 기제의 하나이다. 반면에 사회주의체제는 물질적 동기유인에 반대하여 윤리적 동기유인으로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풍요로운 생활이 행위의 중요 척도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풍요

67) 위의 책, p. 88.

68) 위의 책, p. 58.

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 북한소설들에는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표현이 비교적 많다.

그 지방 특산물과 별식들로 차린 푸짐한 대접에 습관된 리창전은 이었다. 그것과는 비교할수조차 없는 이런 간소한 췌기밥을 먹자니 가책으로 목이 메었다.⁶⁹⁾

유행과 시대풍조에 뒤질세라 새옷을 지어집고 머리모양을 꾸미고 거리에 나서는 도시의 많은 중년 여성들에 비하여 너인의 외모는 초라할 정도로 수수하다.⁷⁰⁾

윤병암은 터전을 보고 그렇게 했다. 그는 집을 교환하면서... 열싸한 집으로 전변시켰다... 지방산업공장에 다니던 안해를 사직시키고 터전 농사를 짓게 하였다. 자못 근면한데다 손부리가 영글고 눈썰미가 좋은 그의 안해는 터전에 심는 마늘과 도마도에서는 물론 돼지, 개, 닭을 잘 길러 해마다 굉장한 수입을 얻었다.⁷¹⁾

식의주에 관련된 위의 소설 구절들을 보면 ‘푸짐한 음식’과 ‘간소한 췌기밥’, ‘유행을 타는 옷’과 ‘수수한 옷’, ‘열싸한 집’ 등 풍요로운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비되는 초라하고 수수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열등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마지막 소설 구절에서는 좋은 집에서 사적인 농업을 통하여 수입창출이라는 자본주의적 생활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가 드러나고 있다.

69) 백남룡, 『동해천리』 (평양: 평양출판사, 1996), p. 59.

70) 위의 책, p. 6.

71) 김문창, 『열망』, p. 16.

다음의 구절의 대상은 비판의 맥락에서 쓰여진 것이지만,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일상생활의 경향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미영은 모든 면에서 부족이라는 것을 거의 모르고 살아온 애였다. 대학도 곱게 마치고 직장도 호텔의사로서 음식을 먼저 검식하고 환자들이 생기면 약을 주거나 위생차에 같이 앉아 큰 병원에 입원시키면 그만이었다.⁷²⁾

개인적으로 안락함을 추구한다는 생활태도에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나, 이러한 비판은 현실적으로 사상적 만족이나 집단이나 국가에의 헌신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주민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앞의 소설들에서 볼 수 있듯이 풍요로운 삶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 수준에서 물질적 동기가 점차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요로운 삶 자체가 사회주의 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물질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체제의 기본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동기 유인

개인적인 차원에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생산현장에서 물질적 동기유인 체제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생산현장에서 기업관리를 다루고 있는 다음의 소설을 보면 자본주의적 동기유인이 북한체제에서 일정 부문 도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2) 위의 책, p. 269.

허상민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정량사업을 물감장사처럼 짜고 들었고 우수한 작업반과 생산계획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상금제를 실시하였다...군중의 눈과 로임봉투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을 깨우치고 자극받게 하여 생산에 적극 인입한 것은 좋은 측면이었다.⁷³⁾

그때 적지 않은 당, 경제 지도일군들이 상민동무가 반당분자들을 추종하여 수정주의경제리론인 리베르만주의를 기업관리에 도입하려고 한 반당적 일군이라고 신랄히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상민동무를 그렇게 일면적으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무의 범벅이 된 기업관리방법이 수정주의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기업관리를 간지께 잘해서 비료생산을 끌어올리려는 불타는 열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⁷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한 상금제는 자본주의적 노동관리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적 원칙에 따른다면 노동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사상교양이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물질에 의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음이 위의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차별적 보상을 통한 물질적 동기유인은 그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적 부분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차별적 보상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궁극적인 목적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기업소라는 조직의 효율성 증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즉, 개인적 발전을 통한 집단 혹은 조직의 발전이라는 논리도 자본주의 체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3) 백남룡, 『동해천리』, p. 116.

74) 위의 책, p. 321.

라. 개인적 성취

자본주의체제가 사회주의체제와 다른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집단에 앞선 개인을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사회주의체제는 개인을 앞서는 집단을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위에서 개인적 차원이 어느 정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가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삶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로박사의 부인이 그 여자를 애지중지했건만 그는 과학자의 양심을 기만하고 자기 명예와 학위만을 존중하는 가문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⁷⁵⁾

그리하여 경필은 탄관에 있는 삼촌과 안면이 깊고 혜정이네 집에서 여러번 만나 이제 퍼그나 친숙해진 석탄공업부 최정국부부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배치문제를 도와달라고 청원하였다. 최정국부부장은 경필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다.⁷⁶⁾

외동딸앞에 아버지구실을 제대로 못한 자신을 두고 모지름을 썼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목숨을 바치라면 그는 서슴없이 내달 것 같았다. 이에 그에게 딸의 행복외에 더 바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딸이 소원대로 당원이 되고 훌륭한 사람한테 시집을 가 마음의 그늘을 모르고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⁷⁷⁾

첫 번째 구절은 과학자의 양심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개인적 명예와 학위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용한 구절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이다. 주인공은 개인적 연분을 통하여 전

75) 위의 책, p. 173.

76) 신용선, 『지금은 봄이다』, p. 75.

77) 김문창, 『열망』, p. 138.

망이 좋고, 수월한 직업을 추구하고 있다. 세 번째 인용문은 개인적 행복에 대한 것으로서 자식에 대한 기여가 행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인용문들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행복의 추구(혹은 가족 구성원의 행복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북한 소설에서 궁극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성향은 이미 1980년대부터 문학예술의 중요한 소재이다.⁷⁸⁾ 이러한 경향성은 문학예술이 집중적으로 비판하여야 할 정도로 북한주민들이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자본주의 사회 묘사

자본주의체제는 북한 문학예술에서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1992년부터 1999년에 걸쳐 다부작으로 제작된 『민족과 운명』의 주요 작품들은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중요한 소재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족과 운명』은 ‘내나라 제일로 좋아’라는 혁명가요의 구절을 모티브로 삼아 김정일의 지시로 제작된 영화로서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회주의 조국 북한의 진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⁷⁹⁾ 이 영화에서 묘사되는 자본주의 체제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자본주의 체제의 화려한 삶이 그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

78) 개인적 성취를 위하여 고향을 저버리고 대도시로 떠나는 영화 『도라지꽃』의 주인공이나, 자식의 입학을 청탁하는 백남룡의 1985년 단편 ‘생명’의 의사 등 1980년대 문학예술에서 개인적 성취는 중요한 소재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서울: 소명, 2000), pp. 285~300 참조.

79)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인 서구사회의 영상에 담겨있으며, 캐나다 호텔에서 바라본 야경,⁸⁰⁾ 파리 에펠탑의 야경,⁸¹⁾ 파리의 노트담 사원,⁸²⁾ 파리 유람선,⁸³⁾ 베를린 시가지⁸⁴⁾ 등 서구국가들이 사랑하는 유명관광지의 풍경이 화려하게 보여진다. 남한사회의 묘사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 한강유람선,⁸⁵⁾ 화려한 청와대 집무실⁸⁶⁾ 등 풍요로운 남한의 생활상이 거의 현실에 흡사하게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과거 남한이나 자본주의 사회를 다루는 영화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1968년의 『성장의 길』도 남한을 소재로한 대표적인 북한영화인데, 여기에서 묘사되는 남한사회는 굶주림과 혈벗음이다. 화려함은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의상이나 행동에서도 나타난다. 영화의 주인공들인 남한의 상류층들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며, 이들이 먹는 음식이나 생활도 풍족하고 풍요롭다.

둘째, 외적 화려함과 대비하여 『민족과 운명』은 자본주의 사회의 삶은 실제로 퇴폐하고 타락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상류층의 타락된 삶이 자주 묘사되고,⁸⁷⁾ 카페와 술집에서 퇴폐적인 문화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⁸⁸⁾ 이러한 장면은 남한사회를 묘사하는 경우에 빈번하고, 미국이나 일본 사회를 다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80) 『민족과 운명 9부』, 1993.
 81) 『민족과 운명 9부』, 1993.
 82) 『민족과 운명 9부』, 1993.
 83) 『민족과 운명 9부』, 1993.
 84) 『민족과 운명 5부』, 1992.
 85) 『민족과 운명 5부』, 1992.
 86) 『민족과 운명 5부』, 1992..
 87) 『민족과 운명 9부』, 1993.
 88) 『민족과 운명 9부』, 1993.

셋째, 풍요로운 삶이 상류층의 몫이라면 여전히 노동자나 도시 빈민의 삶은 빈곤한 것으로 그려진다. 달동네에 사는 피착취 계급은 여전히 굶주림의 문제를 안고 있다.⁸⁹⁾ 그러나 과거의 영화에서는 빈곤과 고달픔이 사회전체의 기본적인 삶이었다고 한다면 『민족과 운명』에서는 일부 집단에 한정되고 있다. 상류층과 대비할 때 극단적으로 빈곤이 강조되지만 더 이상 빈곤이 중심적인 삶의 형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억압적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남한체제는 권력자에 의하여 고문과⁹⁰⁾ 살인⁹¹⁾이 자행되고 있으며, 개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정보정치나 정치공작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민족과 운명』에서 묘사되는 자본주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이룩한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비판은 상류층(군사파쇼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빈부격차보다는 불행한 삶이라는 가치 차원에서의 비판이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정상회담과 북한의 인식 변화

가. 북한의 보도 성향

반세기만에 이루어진 남북한 정상회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의 성격이 평화회담이건 통일회담이건간에 무엇보다

89) 『성장의 길에서』, 1965.

90) 『어머니의 소원』, 1985.

91) 『민족과 운명 9부』, 1993.

다도 그 동안 적대적 관계였던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변화는 두 체제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인식 전환도 요구된다. 이에 따라 남한의 북한인식도 변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북한의 남한인식도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정상회담 기간 동안 로동신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표는 정상회담 기간 동안 로동신문의 기사 가운데 정상회담 및 남한관련 기사를 정리한 것이다 (<표3-1> 참조). 북한에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은 관심을 보였음이 관련 보도 내용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표3-1> 정상회담기간 로동신문의 남북관계 관련기사

일자	관련 기사 제목	내용 · 비고	형식	분량
6.12	우리인민의 통일의지	오늘은 력사적인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고 조선에는 위대한 희망이 있다고 경탄이 목소리를 다시 높인다	정론	5단
	북남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 인사들의 통일애국활동이 탄압당하고 있으며,련북화해,련북통일리적으로 범률화되어 있다	기명 기사	3단
52개 기사	비전향장기수 송환	서울보도 인용	기사	단신
	아주대 민주화투쟁	서울보도 인용	기사	단신
	전남대 총장실점거	서울보도 인용	기사	단신
	미국은 조선통일방해하라	외신인용	기사	단신
	당국의 문화재발굴책임	서울보도 인용	기사	단신
	매항리는 침략자 미제의죄악	새전쟁도발책동의 산물·파렴치한 날강도·방사성무기까지 사용하여·분노의 외침	기사	단신

일자	관련 기사 제목	내용 · 비교	형식	분량	
6.13 50개 기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 하여야 한다	미제의 조정 밑에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인민들이 부당 하게 탄압당하고 애국적인 통일운동단 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억제되었다. 남북조선의 역대 당국자들에 의해 민 족분렬의 정치적, 물리적장벽이 쌓아 짐으로써 북과 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도 계속 격화되었다.	기명 기사	3단	
	온 민족 이 힘을 합쳐 통 일만 세 를 부를 그 날을 앞 당겨 오자	조국통일은 민족 자체의 힘으로 일시적으로 생긴 사상과 제도, 리념의 차이.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특집	5단	
		민족대단결만이살 길이고통일이다	해방동포 반향	특집	5단
		불변의최고통일의 방해자	7·4공동성명 미군철수	특집	3단
		미군은 조선통일 의 방해자		특집	3단
		미국은 조선전쟁의 도발자			
		남조선인민들의 반미투쟁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			
		매항리			

일자	관련 기사 제목	내용 · 비고	형식	분량
6.14 41개 기사	력사적인 상봉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 사진 통면	기사	1 면 통
	평양시민 환영	60여만명 연도에서 환영, 사진	기사	통면
	김영남위원장 의례방문		기사	3단
	김영남위원장연회차렸다		기사	3단
	김대중대통령공연관람	사진	기사	4단
	민족의 역사적숙원은 통일	김정일장군님의 광폭정치, 인덕정치를 받들고 온 겨레가 통일위업을 떨쳐나섰다.	기 명 기사	5단
	대화와 련대련합을 실현해야 한다.	민족대단결5대원칙	기 명 기사	3단
	최고위급회담개최를 지지하는 도교청년집회	조선통신	기사	4단
	어린이에게 참다운통일교육주장	서울보도	기사	단신
	*사진 총 11개	○비행장약수 ○비행장환영인파 ○비행장사열 ○비행장환영인파답례 ○초대소정상사진 ○수행원들과 ○화동 ○거리인사 ○김영남방문 ○거리환영 ○공연관람		
6.15 45개 기사	북남공동선언	합의문, 사진	기사	통면
	단독회담 진행	북남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신뢰와 화해를 모색, 사진	기사	3 / 4 면
	김대중대통령연회주최		기사	4단
	만경대학학생소년궁정 관람	사진	기사	3단
	최고위급회담진행	민족의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논의 사진	기사	4단
	대통령부인시내참관	사진	기사	
	대통령부인스승상봉	공화국제도 선진적이고 인민적인 사회제도	기사	
	수행원시내참관	사진	기사	단신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	미국 비판	해설	2단
	*사진8개	○공동선언서명 ○정상약수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정상 ○서명후남측인사와 ○대통령만경대참관 ○최고위급회담 ○평양산원참관 ○평양지하철참관		

일자	관련 기사 제목	내용 · 비고	형식	분량	
6.16 57개 기사	김대중대통령환송	비행장에서 뜨겁게 환송하시었다. 사진	기사	3 / 4 면	
	오찬을 마련하시었다.	사진	기사	2면	
	각 계 반 응	승고한통일의지에 고무되어	평양도당책임비서		5단
		통일념원을 반영한 력사적인 선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		3단
		통일운동사에 불면 한 업적	문화상		3단
	수원들 동명왕릉 참관	사진	기사	5단	
	외세는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미국은 북남대화가 진행될 때마다 정세를 고 의적으로 진장시키면서 대결을 부추켜왔다.	기명 기사	5단	
6.17 74개 기사	김정일선물을 드리였다	진돗개. 사진	기사	단신	
	김정일선물을 드리였다.	방문기간 선물	기사	단신	
	김정일선물을 주시였다	진돗개, 사진	기사	단신	
	시대착오적인행동	인공기 계양과 검찰의 견해	기명 기사	2단	
	불평등한남조선미국행정 협정을 고쳐라	사진	조선 중앙	5단	
	민주로총 민중대회진행	서울보도	기사	단신	
	경산시민단체들통성	서울보도	기사	단신	
	로태우비밀자금반환요구	서울보도	기사	단신	
	정치인들은범죄자들	서울보도	기사	단신	
	의사과업금지	서울보도	기사	단신	
	축산업로조위원장구속	서울보도	기사	단신	
오산미공군기지피해	서울보도	기사	단신		

일자	관련 기사 제목	내용 · 비고	형식	분량
6.18 60개 기사	민족대단결은조국통일의 결정적 담보	북과 남, 해외의 온민족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대로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령도에 따라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총결기	기명 기사	5단
	남조선에서미군과 핵무 기를 철수할 것을 요구	반미공동투쟁 개막신이 인디아에서 진행	조통	5단
	적십자총재에 전통문	친척방문단 교환. 비전향장기수 문제해결	기사	3단
	미국에 대한의존에서벗 어나야한다.	서울보도	기사	단신
	학살만행에 미국 책임	서울보도. 리장희교수	기사	단신
	미국은 행정협정개정에 성의를 보아야	서울보도	기사	단신
	일본이 12.12 지원폭로	서울보도. 박순원교수	기사	단신
	미군기지로 동두천주민 피해		조통	단신
	반미자주화에 산실	매향리, 사진.	기명 기사	5단
	강력한항쟁으로피값을 받아내자	모든악의 근원은 미군. 남조선 여론	기명 기사	3단
올분의 폭발	미문화원사건	기면 기사	2단	
6.19 58개 기사	따르자받들자김정일장군	남녘겨레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없이 경모하고 칭송	기명 기사	5단
	변함없는 지배야망의 발 표	미국은 분렬을 지속	해설	2단
	감격과 환희의 글밭도	남녘인민들의 경모의 마음. 대학교수와 학생들	기사	2단
	경모의 마음시에 담아	남녘의 시인들의 시	기사	2단
	미군 긴장요인	서울보도	기사	단신
	부패정치인은 사라져야	서울보도	기사	단신
	미군은 철수하라	미향리 반미시위	조통	3단
	이남은돈과신문이 결정	서울보도	기사	단신
	보안법폐지를 주장	서울보도	기사	단신
	전남일보로조투쟁	서울보도	기사	단신
	국고금낭비하는국회의원	서울보도		
	남조선주민들이 전쟁시 기 학살만행공개	외신	조통	5단
	련방제방식으로 조국은 통일되어야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통일국가의 전모와 그 실현방도를 밝힌 휘황한 설계도인 고려민주....	해설	5단

<표3-2> 조선통신 정상회담 관련 기사

<p>김대중대통령내외분이 선물로 받은 풍산개의 이름을 지어 보내여 왔다(6월 22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였다(6월 17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내외분에게 선물을 주시였다(6월1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내외분이 선물을 드리였다(6월 16일)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왔던 김대중대통령 평양출발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뜨겁게 환송하시였다(6월15일)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6월15일) 김대중대통령의 일부 수원들 가금목장과 동명왕릉 참관(6월15일) 김정일령도자와 김대중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 진행(6월15일) 김정일령도자께서 김대중대통령과 함께 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였다(6월15일) 북남공동선언(6월15일) 김대중대통령이 연회를 차렸다(6월15일) 김대중대통령의 일부 수원들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6월14일) 김대중대통령의 부인이 평양에서 옛 스승을 만났다(6월14일) 김대중대통령의 부인 평양시내 여러곳 참관(6월14일)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 만경대학소년궁전 참관(6월 14일) 력사적인 북남최고위급회담 평양에서 진행(6월14일) 김영남위원장이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을 위하여 연회를 차렸다(6월13일) 김대중대통령과 그 일행 평양시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 관람(6월13일) 김영남위원장을 김대중대통령이 의례방문(6월13일) 평양시내 60여만의 각계층 시민들 수십리 연도에서 김대중대통령과 일행을 동포 애의 정으로 환영(6월13일)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위하여 오는 남측대표단 평양 도착 김 정일동지께서 김대중대통령을 비행장에서 따뜻이 영접하시였다(6월13일) 남측선발대 평양 도착(5월31일) 제5차 준비접촉/판문점 남측지역(5월18일) 제2차 통신, 보도실무자접촉/판문점 남측지역(5월17일) 쌍방 통신, 보도실무자접촉/판문점 남측지역(5월13일) 제4차 준비접촉/판문점 북측지역(5월8일) 제3차 준비접촉/판문점 남측지역(5월3일) 제2차 준비접촉/판문점 북측지역(4월27일) 제1차 준비접촉/판문점 남측지역(4월22일) 북남합의서 전문 북과 남사이에 합의된 북남합의서(4월8일)</p>

* <http://www.kcna.co.jp/index2.htm>

조선 중앙통신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상회담과 관련된 관련기사의 제목을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표3-2>). 과거와 같이 남한체제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은 없는 대신에 정상회담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회담기간(13~16일)을 제외하고는 남한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비판적인 기사도 주로 남한의 사건 중심으로 사실보도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표현을 쓰고 있지만 남한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는 지속되고 있으며, 남한 당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남조선에서는 민간 및 사회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의 통일애국 활동이 탄압당하고 있으며 량북화해, 량북통일이 「리적」으로 법률화되어 있다.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낳는 근원으로, 북남관계의 개선과 민족적 단결의 장애로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⁹²⁾

남한에 대한 비판이 축소되거나 작은 반면, 미국에 대한 비난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의 태도가 부정적임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속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전히 미국은 ‘세계화’를 빌미로 “발전도상나라들의 재정금융, 무역, 문화 보건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파괴를 몰아오고 있으며,⁹³⁾ 미국의 본질에 대한 논조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 일어난 금융위기도 미국이 ‘세계화’를 통하여 제

92) “북남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로동신문』, 2000. 6. 12.

93) “현대제국주의의 교활하고 추악한 정체,” 『로동신문』, 2000. 6. 18.

국주의자들의 경제적 지배를 공고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⁹⁴⁾ 이와 같은 미국에 대한 비판은 회담기간에도 내내 지속되고 있다.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회담자체의 의의를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과거의 인식을 본질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여전히 자본주의의 최고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제국주의적 침략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주성의 구현, 연방제 주장 등 기존의 대남정책이나 관점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절대화의 경향도 여전하다.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남한인식, 자본주의관이 그대로 유지되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회담 이후에 회담의 성격을 규정하는 관련 해설이나 사설이 없으며, 비판의 초점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차원에 대한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한사회의 비판적 인식도 현재 남한의 진보적인 성향 수준으로 낮추어져 있다는 것도 새로운 인식 전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지도층의 인식

보도와 더불어 정상회담 이후 북한 고위인사의 자본주의와 관련된 언술들을 살펴보는 것이 북한의 인식변화를 부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된다. 다음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관련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94) “<세계화>는 제국주의의 지배주의 전략,” 『로동신문』, 2000. 6. 16.

95) 김대중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있으나, 은연중에 김정일이 위에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개를 교환하는 기사에서 김정일은 김대중에게 ‘주시였다’, 김대중은 김정일에게 ‘드리었다’가 된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녁변견직공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지난 기간 약산단, 다색단, 문공단을 비롯한 질 좋은 비단천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들의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녁변견직 공장에서 우리 인민들이 좋아 하는 비단천생산을 급격히 늘여 곁 혼식하는 처녀총각들과 생일 60뚱, 70뚱을 맞는 로인들에게 비단 옷과 비단이불을 공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⁹⁶⁾

김정일이 견직 공장 현지도에서 강조한 내용은 생필품 생산의 중요성이다. 따라서 최근까지의 북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단을 일상적인 생필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단은 일종의 풍요로운 생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들에 대하여 풍요로운 삶을 통하여 물질적 동기유인을 강조라는 방향으로 설득의 방향이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위원장 이어 “박정희 평가는 후세들이 해야지 동참자들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때 그 환경에서는 유신이고 뭐고 그럴 수 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말해 72년 7·4남북공동성명을 남측이 유신체제 구축에 악용해왔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을 밝혔다.⁹⁷⁾

위의 인용문에서 김정일은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근 북한이 박정희식 성장모델을 채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언론인들과의 대화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김정일은 박정희에 대해

96) 『조선중앙통신』, 2000. 6. 22.

97) “언론사 사장단과의 대화,” 『한겨레』, 2000. 8. 14.

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현재 남한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북한에서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었다는⁹⁸⁾ 점을 고려한다면 김정일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있다. 박정희 모델이라는 것은 결국 강력한 정치적 통제를 바탕으로 한 과대성장국가 주도의 산업화라고 요약할 수 있으나,⁹⁹⁾ 자본주의적 사회발전 전략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또한 박정희의 정책은 극단적인 해외의존적 경제성장 정책으로 이것 역시 북한이 전통적으로 비판하여 왔던 내용이다.¹⁰⁰⁾ 비록 김정일이 유신-정치적 통제-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박정희식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몽헌회장의 안내를 받으시며 현대아산에서 건설한 고성항부두, 호텔, 관광센터를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 보시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현대아산이 금강산개발을 비롯한 경제협력을 위하여 지난 기간 많은 일을 하였으며 경제협력관계를 한계단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추진함으로써 북남공동선언의 리행에 적극 기여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성실한 노력을 치하하시었다.¹⁰¹⁾

현대아산의 최고경영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김정일이 한 말은 그동안 현대가 대북사업에서 북한에 기여한 바에 대한 일상적인 치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금강산 현

98) 손종철, 『남조선경제는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예속경제』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9), 3장 참조.

99) 이우영, “박정희 지배이념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연세대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1.

100) 손종철, 『남조선경제는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예속경제』, pp. 118~152.

101) 『조선중앙통신』, 2000. 10. 1.

지에서 현대사업을 시찰한 것은 일종의 현지지도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은 단순히 금강산사업이 아니라, 호텔과 관광센터와 같은 관광업이 된다. 현재 금강산 사업은 남한기업이 남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으나, 현대는 북한이 그 동안 비판하였던 남한식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독점 대기업이고,¹⁰²⁾ 호텔업 등은 대표적인 자본주의 산업이라는 점에서 김정일이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진 남북교류과정에서 남한을 방문한 북한의 고위급 지도자들의 언술에서도 달라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장관급 회담으로 서울을 방문한 전금집 단장 일행은 삼성공장을 방문하던 자리에서 “삼성이 이남 대기업으로 세계적인 명성이 있고 현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업운명을 하는 업체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며 “매출 2백30여억달러, 직원 4만여명이 넘는 대기업으로 듣던 것과 같다”고 말하고, “경애하는 장군님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사이 역사적인 상봉과 평양 회담에서 좋은 공동선언이 나왔다”며 “공동선언 4항의 북남 경제협력 활성화와 문화, 보건, 체육환경 등 광범위한 협력을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삼성 공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우리 민족의 저력이 크다”며 “북과 남이 자원과 기술을 합치면 공동 번영하고 세계에서 강성대국으로 당당히 나갈 수 있다. 힘을 합쳐 사업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시찰에 참가한 북측 대표단은 삼성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하는 등 경청하였다. 또한 생산현장을 돌아볼 때는 “여기 노무자들도 전문지식 기술이 있겠죠”, “기술자들은 어떤

102) 황한욱, 『현대제국주의의 경제구조』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0), 6장 참조.

가”, “삼성 전체 매출액은 얼마나”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질문을 하였다.¹⁰³⁾

6·15정상회담 등을 통하여 달라진 남북관계 때문에 의례적으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북측 대표단이 보인 관심은 내용상으로도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남한 기업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평가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출액이라는 것으로 사용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교환가치를 상대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적 경제관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의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방법과 관심이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분업체제를 산정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국가간의 국제적 분업체제와 일맥상통한다.

자본주의 혹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는 “남북한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돈·지식힘’으로 조국통일에 특색있게 기여할 것”을 강조하는 로동신문 기사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¹⁰⁴⁾ 같은 글에서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야 한다”면서 “반세기 이상이나 갈라져 살아온 북과 남 사이에는 사상과 이념, 제도에서 여러 차이가 있지만 하나의 민족으로서 공통성이 더 크다”면서 “조국통일이라는 민족 공동의 위업을 앞에 놓고 단합하지 못할 조건이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사상과 제도, 계급과 계층에 관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포섭하고 단합시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

103) 『연합통신』, 2000. 7. 31.

104) 『로동신문』, 2000. 8. 23.

이라며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위업에 힘과 지식, 돈으로 공헌한 사람들은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의 이름으로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 기사는 민족대단결론의 흐름 안에 포괄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자본가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 그리고 부강이라고 하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인정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 정상회담 이후 자본주의관 변화의 특성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대한 보도 경향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음의 <표3-3>은 2000년 11월 조선중앙통신의 남한관련 기사 제목이다. 기사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남한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나, 주로 남한에서 있었던 사건을 사실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남한체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다음은 2000년 11월의 조선중앙통신의 남한관련 보도들이다.

(평양 1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문화방송>보도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의 대학생 100여명이 10월 27일 서울용산구에 있는 미군기지앞에서 반미집회를 가지었다. 대학생들은 매향리에 있는 폭격장을 당장 폐쇄할 것을 미군측에 요구하였다.

(평양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 서울에서의 <기독교방송>에 의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교원과 학부형, 학생 등 1만여명이 5일 종로구대학로에서 집회를 가지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할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그들은 사립학교들에서의 부정부패현상을 없애기 위해 이번 <국회>에서 이 <법>이 반

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실현을 위해 광범한 국민서명운동을 벌릴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투쟁에 대한 사법처리, 처벌계획을 걸어 치울것 등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서울의 <기독교방송>이 남조선에서 연말에 이르러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하여 전하였다. 방송은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화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기업체들과 금융기관들에서의 구조조정에 있다고 하면서 기업체들을 대대적으로 없애려는 당국의 처사로 <대량실업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방송은 <민주로총>과 <한국로총> 등 로동계가 <구조조정은 로동자들에게 고통을 들씌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대해 나서고 있는 사실을 전하면서 <앞으로 로동계의 강도 높은 투쟁이 예상된다>고 강조하였다.

기사 내용은 남한의 보도를 인용하여 사실을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을 뿐, 보도내용과 관련된 해설도 없으며, 북한 입장에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는 없으며, 남한체제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과거의 기사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출처가 불확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허위 보도도 없어지는 경향이다.

정상회담 이후 남한에 대한 보도태도가 상대적으로 유화적이 되었다는 것이 곧 바로 자본주의를 수용한다거나 남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투쟁은 낡은 것과 새것과의 투쟁이며 새것은 그것이 체현하고 있는 진리성과 진보성으로 하여 커다란 견인력과 위력한 생활력을 가진다.¹⁰⁵⁾

105) “사회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로동신문』, 2000. 9. 8.

<표3-3> 2000년 11월 조선중앙통신 남한 관련기사

1	대학생들 미군의 매항리폭격장폐쇄를 요구·미군이 10월에 150여차의 공중정탐행위	16	<한국로총><로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할것이라고 경고·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로 100여명 부상
2	인권단체가 경찰의 인권유린행위에 항의·미군병사의 추태	17	후방지역들에 75,000여발의 지뢰 매설
3	고양시주민들 퇴폐적인 유흥업을 반대하여 시위	20	언론개혁시민련대 신문개혁요구
5	부산민족민주청년회 회원들이 공화국북반부 찬양·리천에서 홍역환자 집단적으로 발생·륙군부대<대침투종합훈련>감행	21	<한국로총>소속 로동자 3만여명 구조조정을 반대하여 집회와 시위
6	미군이 땅크로 벼를 갈아몽개는 만행 거듭 감행	23	농민단체들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
7	여러지방에서 홍역환자 발생 <전교조>집단투쟁을 선언	25	심해 지는 학생들의 폭력행위
8	백두회가 로동당창건 경축행사 록화테프 제작·삼성상용차로동자들 생존권보장을 요구	26	민주로총과 <한국로총>이 공동투쟁위원회 구성 합의
9	미국이 건물사용료를 내지 않아 발생·미군의 환경오염행위·여러 소식	27	울산시의 일부 지대가 방사능에 오염·<교육부>가 <전교조>교원들을 처벌하기로 확정
10	<어업협정>으로 피해만 보는 강원도 해안 어민들	28	록색련합 미군의 환경오염사고의 조사를 요구·<민주로총>과<한국로총>이 제2차공공부문로동자대회
11	미군살인자에 대한 두둔 인천에서 암환자 많이 발생	29	통신로조원들 룡성·<국민행동>이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안>에 대한 화형식·<문화방송>로동계의 투쟁이 거세차게 벌어 질것이라고 전망
13	<정보원> 출판사대표를 련행 <민주로총>소속 2만여명의 로조원들 로동자대회 진행		

*<http://www.kcna.co.jp/calendar2/frame2.htm>

위의 인용문은 2000년도 9월의 노동신문 사설의 일부분이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북한체제가 지향하는 것은 사회주의체제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에 대한 관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남조선에 대한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이나 남한체제를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특히 제국주의에 대한 경계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략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경고하고 있으며, 내부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정상회담 이후에 방북하거나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제협력이나 개혁과 개방에 대한 완고한 태도는 여전하다고 한다. 특히 대남사업 분야의 사람들과 달리 대내사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고위인사라고 하더라도 정상회담으로 변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다고 한다.¹⁰⁶⁾ 따라서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거의 자본주의관이 급격하게 변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과거의 자본주의 인식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에 대한 포용의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직접 표현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거에 비교해 보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의 수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에 대한 비판도 현저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¹⁰⁷⁾

둘째, 해외의존적 경제성장 모델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06) 정상회담 이후 방북한 인사의 증언, 2000. 9. 21.

107) 10월에 평양을 방문한 미국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김정일이 직접 만나는 등 환대하고, 특사로 미국에 간 조명록도 외교적인 예의를 충분히 갖추는 등 과거와는 다른 자세를 보였다는 것도 미국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북한의 기본적인 발전 전략은 자립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남한 기업들을 포함하여 해외 자본 유치에 대하여 적극적이다.

셋째, 과거에는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었던 재벌 등 대자본가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강산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는 최고 경영자를 김정일이 지속적으로 만났으며, 정상회담 이후 남한의 대표적인 재벌 삼성도 대규모 인원이 방북하는 등 대자본에 대하여 유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대자본가가 직접 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자본주의적 노무제도를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의 사업설명회에 따르면, 월 임대료와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¹⁰⁸⁾ 앞으로 남한 기업에 노무관리 권한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는 논의의 대상이지만,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관리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실행된다면 북한이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계 개선 정책을 펴고 있다. 다음은 노동신문의 보도 내용을 설명한 조선중앙 통신 기사로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2일부 <노동신문>은 조선의 대외적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으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것은 좋은 일이며 모두의 환영을 받을만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룡평의

108)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조건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한 간에 협상이 진행중이나 현대의 사업설명회에 따르면, 남한보다 적은 수준의 임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투자환경을 보장하겠다고 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0. 11. 1.

필자는 세기가 바뀌는 시기에 와서 조선반도의 정세가 긍정적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데 대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인민들이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발전을 반대, 외면한일이 없다.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나라들과 관계를 맺고 발전시켜 나가자는 립장이다. 우리는 설사 과거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존중하며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태도로 나오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맺고 발전시켜나갈것이다. 불신을 없애고 호상신뢰를 이룩하는것은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노력할 때만이 가능하다. 자주성의 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이며 요구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실지로 기여하게 될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앞으로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나라들은 우리의 립장과 요구를 똑바로 인식하고 자기 할바를 옳게 하여야 한다.¹⁰⁹⁾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는 이탈리아 및 호주와의 국교정상화, 미국과의 관계개선, 일본과의 적극적 수교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09) “신문논조: 현실을 반영한 응당한 귀결/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2000. 10. 22.

IV.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의 의미

1. 자본주의 인식 변화의 특성

사회주의를 체제이념으로 선택한 북한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분단과 전쟁 그리고 체제 경쟁과정에서 반자본주의적 인식은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자본주의 인식은 적지 않게 변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가 성립 이후 초기에는 자본주의체제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체제는 자체 모순으로 소멸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 모순의 핵심은 계급적 착취와 이에 따른 계급갈등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전통적인 맑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이념적인 차원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는 이론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파악한다. 제국주의를 자본주의 기본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이론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레닌이 이야기하는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몰락과 혁명에 대한 자신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핵심 속성으로 이해함에 따라 계급갈등과 더불어, 식민지적 지배구조가 자본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미국으로 상징되는 제국주의 중심국이 예속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제3세계에 대한 국가적 착취가 비판의 대상이 되며, 식민지국가 안에서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쇼세력이 일정한 이익을 거두면서 민중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은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몰락을 필연적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발전과정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영속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부정의 대상이었던 자본가계급에서도 양심적인 민족자본가나 중소자본가는 수용의 대상이 된다. 여전히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보고 있지만,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따라서 문제는 자본주의 자체보다는 자주성을 확보하는가 여부가 된다.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인정은 198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어 자본주의 국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바람직한 체제라는 전체가 불기는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와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제국주의를 대변하는 미국과 여전히 독점자본가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이들이 더 이상 자본주의체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들어서서는 자본주의의 평가를 넘어서서 부분적인 수용도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의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수용할 의사를 분명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용은 문자 그대로 부분적인 수준이다. 생존을 위해서 불가피한 부분에서 최소한 수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까지 일방적으로 비판하였던 남한체제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평가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열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의 존재와 성과를 인정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두

고 부분적으로 수용 가능하게 인식하는 1970년대 이후의 자본주의 비판은 초기와 달리 수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여전히 제국주의적 착취나 빈부격차 등이 강조되지만, 이보다 삶의 질, 특히 행복이라는 가치기준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한다. 그리고 비판의 중심은 자본주의 사조 유입의 경계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최근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은 과거보다 더욱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 내적으로 자본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여전히 거부하지만, 최근 문학예술 작품에서 보여지듯이 일상생활에서도 자본주의 요소를 수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상회담 이후에는 가장 비판적인 자본주의체제의 하나였던 남한체제에 대한 비판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비판의 경우도 체제의 문제보다는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대내외적 조건 변화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건설기나 전쟁 이후 복구기 그리고 1960년대 사회주의적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체제와 이념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았으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식량난으로 대변되는 위기 상황을 경험함에 따라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비판도 그 강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세계체제의 상황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상도 자본주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는 제국주의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국가사회주의 몰락은 자본주의체제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체제 일반에 대한 인식이 점차 유화적으로 되어 가는 반면, 미국이나 남한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굳어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국주의 체제로 자본주의의 핵심적 문제로 인식하는 한 가장 중요한 적대세력이 될 수밖에 없으나, 이에 못지 않게 전쟁의 당사자라는 점이 인식변화를 가로막은 중요한 원인가운데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 남한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대상자였으며, 분단이후 체제경쟁의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인식 전환이 쉽지 않았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급격하게 바뀐 것은 남한의 경제적 발전, 이에 대비되는 북한의 경제난이라는 상황변화를 북한이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남한의 정권교체와 김대중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도 인식변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동안 남한에 대한 비판이 반세기 가까이 지속되어왔지만, 그 내용을 보면 비판의 초점이 미국의 정치적 지배상태, 미국과 일본에의 경제적 예속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군부파소집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일정한 수준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남한내 정치적 지배구조가 변환되는 경우 남한에 대한 인식 전환은 미국에 대한 인식전환보다는 용이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한의 일반 민중에 대한 적대적 인식은 거의 없었으며, 북한의 주장과 소통되는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다는 점도 의미가 있게 볼 필요가 있다.

2. 자본주의 인식 변화의 원인

가. 사회주의 산업화의 한계

한국전쟁에 의한 파괴, 국토분단이라는 악조건하에서도 북한이 초기 산업화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주의가 사회발전의 대안적 모델로서 나름대로 효용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1970년대를 고비로 발전이 지체되었으며,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한 1980년대 후반 이후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체제가 산업화 초기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쟁아스의 추격발전 이론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다.¹¹⁰⁾ 그러나 산업화 초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봉쇄전략이라는 외적 요인, 기형적인 계획경제관료제로 인한 우선 순위가 불합리한 정책들, 사회주의 세계체제내 분업의 미발달로 인한 경제효율성 결여, 누적된 소비욕구 불만 등의 내적 요인이 결합하여 사회주의 국가들은 외연적 경제에서 내포적 경제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좌초한다고 볼 수 있다.¹¹¹⁾ 북한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제3세계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가장 효율적으로 초기 산업화에 성공하였고, 높은 수준의 사회통합 능력을 자랑하였지만, 선진 사회주의 국가가 겪은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남한과의

110) Dieter Senhaas,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 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남 1990), 참조.

111)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 62.

대치상황에 따라 과도한 국방비의 지출이 불가피하였고,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진영의 배제 전략의 강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 침체와 사회발전의 지체는 궁극적으로 체제 위협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체제변혁에 대한 요구는 필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 변혁은 자본주의의 수용이나,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부자본의 유치 혹은 외부자본과 협력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변화는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나. 국가사회주의 몰락과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변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소련을 비롯한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은 체제이념으로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패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소비에트 모델을 수용하였고, 사회발전 전략으로서 사회주의를 채택하였던 북한으로서는 현실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은 커다란 충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북한체제의 고유성을 강조하면서, 몰락한 국가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상적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¹¹²⁾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이념적인 차원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가 중심이 되는 세계체제에 편입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었다.

112)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 자립경제를 목표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고는 하나, 그 동안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국제경제체제에 편입하여 부족한 식량 및 자원 등을 조달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사회주의 국제경제체제는 붕괴하였고,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들을 자본주의 국제시장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접촉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북한의 기존 태도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접촉 증가는 과거와 같은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변화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중국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체제를 변혁시켜왔다.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장 가까운 중국이 자본주의를 과감하게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자본주의체제 그리고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식량난으로 인한 계획경제 체제의 붕괴

북한의 경제난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심화된 식량난은 배급체제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식량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자생적이고 자구

적인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음의 몇 가지 현상이다.

첫째, 텃밭 등에 의한 농산물이 농민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텃밭, 부업밭, 폐기밭 등 사적 생산에 의해 농민시장에 공급되는 농산물은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 1998년 9월 개정된 헌법도 24조에서 “텃밭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경리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그 밖의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도 개인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개인소유를 보호하며 그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되는 사유재산은 텃밭과 부업밭을 들 수 있다. 텃밭은 30평 미만으로 원래 채소 등의 부식물을 심도록 되어 있으나 농민들은 옥수수나 콩, 마늘 등을 심고 있으며 생산성이 높아 북한 전체 생산량의 20%를 상회한다. 부업밭이란 작업반이나 직장 등 단위별로 척박한 땅을 활용해 옥수수나 콩을 재배, 공동소비하는 형태를 말한다. 텃밭이나 부업밭이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한 데 비해 폐기밭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작형태로 개울가나 낮은 언덕 등과 같이 버려진 땅을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는 형태이다. 텃밭, 부업밭, 폐기밭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운데 자체 소비되고 남은 생산물이 농민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

둘째, 공장에서 부업 등에 의한 경공업품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있는 가내작업반에서 소비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늘리기 위한 경쟁운동으로 ‘8.3인민소비품 창조운동’이 실시되고 있다.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이용해 가내작업반에서 생산한 8.3인민소비품은 국영 직매장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지만 당국의 철저한 관리통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농민시장으로 일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밖에 개인이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한 후 이윤의 3~10%를 거래세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 물건이 농민시장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다.

셋째, 밀무역을 통한 상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들이 상당 부분 암시장 및 장마당에서 유통되고 있다. 지난 1983년 조인된 중국과 북한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중국의 보따리상인들이 중국의 제품이나 기타 외제품을 가지고 들어가 북한에 1개월 가량 체류하면서 중국인 전용시장에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¹¹³⁾

113) 유명한 시장은 남양시장(함북 온성군 남양리), 회령시장(함북 회령시), 무산시장(함북 무산군), 혜산시장(양강도 혜산시), 신의주시장(평북 신의주) 등 다섯 곳이다. 이곳 시장은 매일 개장되는데 보통 2백~1천여 명의 중국인 장사꾼들이 상주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중국에서 가장 싸고 질 낮은 제품들을 가져다 비싼 가격에 팔아 이윤을 남긴다. 거래되는 품목은 수백가지의 생필품들이며 심지어 상표가 떼어진 한국산 옷과 신발류, 가전제품까지 거래된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밀반출되는 품목은 북한산 골동품, 고급 철제품, 금, 은, 동 등 희귀금속이다. 공식 및 비공식 무역으로 수입된 물품 외에 외교관들의 물품 반입과 재일 조총련 및 북한에 거주하는 일본인 처들의 친척들이 북한으로 보내는 물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민시장과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북한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물품은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경무역과 중국 조선족 상인에 의한 유입,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구입해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다. 신의주 주민의 경우 전 주민의 90% 이상이 장사에 종사하고 있는데 주로 중국과 내륙지방 간의 거간역할을 하는 장사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중국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수집해서 중국에 넘겨주고 이를 식량으로 넘겨받아 북한내 다른 지방 주민에게 비싸게 판다. 그 밖에 북한의 공장 기업소들에 의한 조직적인 밀무역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북한 국경 지대에 개설된 나진시장 등에서 중국산 물품을 구입해 내륙지방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국가 기관, 기업소 또는 개인들이 나진시에서 중국 상품을 대량으로 사서 평양시에 들여다 파는것을 없애라”고 지시할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1998년을 중

넷째, 불법적으로 사취한 물품과 상류층의 잉여분, 협동농장 분조의 초과생산물 등의 유통을 생각할 수 있다. 불법적으로 빼돌린 물품은 대부분 중국과의 밀무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관, 기업소는 북한 당국으로부터의 원자재 공급이 끊긴 상황에서 계획달성을 위해 일부 물품을 시장에 팔고 이 자금으로 원자재를 구입하기도 하며 무역회사가 수입한 물품을 불법적으로 농민시장에서 암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적인 사취는 주로 직장에서 자재를 훔쳐 이를 되팔거나 훔친 자재를 이용해 각자 집에서 재가공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류층의 잉여분은 배급분 가운데 일부가 시장에 유입되는 것이 있으며 외화상점이나 국영상점에서 싼 가격에 구입해 농민시장에서 되파는 것이 있다. 분조의 초과 생산분 역시 지난 1996년부터 개선 시행된 분조관리제에 따라 농민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을 말하지만 그 비중은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의 농민시장은 계획경제가 발전할 때는 위축됐고 계획경제가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실현되지 못했을 때는 확대되는 등 축소와 확대를 반복해 왔다. 김일성도 농민시장을 “협동농장 농민들의 개인부업 또는 공동부업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를 통해 주민들에게 직접 파는 상업의 한 형태”라고 하고 있다¹¹⁴⁾. 김일성은 농민시장을 사회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으나 김일성의 예측과는 달리 현재 농민시장은 계획경제의 부진으로 번창하고 있다.

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1호(2000), pp. 158~168.

114)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부문 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년 3월 1일, 『김일성 저작집(2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북한 당국은 농민시장이 성장하면서 비사회주의 현상을 확대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고 판단, 지난 1987년과 1992년 농민시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매일 장을 10일장으로 환원시키려는 조치를 취하는 등 농민시장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 농민시장의 확산을 용인하게 됐다. 특히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활 필수품을 농민시장에서 구입하게 됨에 따라 ‘시장경제’ (농민시장)는 북한에서 하나의 경제부문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993년 3월을 전후로 엄격하게 단속되던 쌀, 옥수수 등의 곡물판매가 사실상 묵인됐으며 공산품의 거래도 확대됐고 1995년 중반 이후 경제난이 악화되면서 장마당에 국가통제 품목이 대량 유통돼 북한 당국이 식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¹¹⁵⁾

115) 북한 당국은 지난 1988년과 1999년 초에도 북한 전역의 장마당 폐쇄를 시도했다. 특히 1999년 2월에는 김정일 노동당 총비서가 자유시장 운영자들에게 원래 일하던 공공직장으로 복귀할 것을 지시하고 4월에는 반대로 계획경제체제를 복구하기 위한 ‘인민경제계획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북한 당국이 1999년 7월부터 쌀, 조, 수수 등 곡물과 담배, 채소류 등 일부농산물에 대해서도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시장은 개설 취지와는 달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용품, 식료품 등의 암거래 집결소 및 공급지로 변해가고 있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에서도 대부분의 생산물 가격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53년부터 ‘개인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운동’이 시작되면서 58년 8월 내각 결정에 따라 ‘농촌시장’이 폐지되고 대신 ‘농민시장’이 개설됐으며 이후 69년 김일성 주석은 농민시장을 1개군 1개소만 개설토록 하고 그동안 매일 장이었던 농민시장을 10일마다 개장하도록 변경, 농민시장은 위축됐다. 농민시장은 지난 70년대까지는 북한 경제 성장과 저렴한 가격의 배급정책으로 활성화될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80년대 들어 김 주석이 농민시장을 활성화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농민시장이 붐을 이루었고 84년 정무원이 농민시장 이외에 1개 군마다 1-2개소의 일일시장을 설치, 운영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면서 일일시장은 각 시군별로 3~4개씩 증가했다. 남성욱·문성민.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1998년을 중심으로,” p. 162.

텃밭을 허용하고 농민시장을 인정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텃밭에서 생산하는 양식이 개인적인 소비(사용가치)가 목적이 아니라 판매(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농민시장이 생필품의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이익의 창출과 직업적 장사꾼의 출현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도입되고 있는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비록 식량난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강제되었다고는 하지만, 일정기간 지속되고 구조화되었다면 특히 일반인들이 자본주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라. 개방정책에 따른 외부문화의 유입

북한이 고립정책을 취하면서, 외부문화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온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은 외부세계와의 완전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건국 초기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소련과 빈번한 접촉을 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전쟁 당시 도움을 주었던 중국과의 왕래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가사회주의가 몰락하기 이전에는 동구의 여러 나라들과 일정한 교류를 하여왔다.¹¹⁶⁾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서구사회와의 접촉이 많았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는 북한이 간접적으로 자본주의를 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116) 198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문화교류가 빈번하였다. 동구권의 영화가 북한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문화단체의 상호방문 공연, 영화제 참가, 공동영화 제작 등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우영,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이 밖에도 유학생 파견, 기술자 및 관리 왕래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꾸준히 지속하여온 개방정책은 직간접적으로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데 기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¹¹⁷⁾ 조총련과는 이미 1986년부터 「조선국제합영총회사」가 설립되었고, 1989년에는 「조선합영은행」을 설립하는 등 자본주의 회사들과 합작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비록 서방기업의 투자 기피로 1984년이래 성사된 합작투자의 90%가 조총련 및 중국에 의한 것이지만, 개방정책이 지속되어온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¹¹⁸⁾

비록 북한의 개방정책이 극히 제한적이고, 경제적으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으나, 개방정책의 결과 자본주의 체제와의 접촉이 증대되고,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볼 수 있다. 개방과 교류의 대상에는 남한 기업과 기업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투자 상담이나 교역과정의 접촉이나 교류는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었지만, 나진·선봉지역의 개방, 경수로 건설 사업을 통하여 남한 국민을 포함하여 자본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북한에 장기 거주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더욱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사업관련 직원 등 남한 주민들이 북한에 장기 거주하고, 대규모의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협력 사업 이외에도 자본주의 국가의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가 점차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화 획득을 목표로 하였다고는 하나 1980년대 이후 미국교포들의 북한 거주 친인척 방문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1985년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사업 이후, 총

117) 북한은 중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1979. 8)을 원용해 1984년 9월 8일에 「합장회사운영법」을 제정한 바 있다.

118) 북한의 외자사업에 대해서는 최수영,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1993) 참조.

리회담에서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남한 사람들의 북한 방문도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귀국한 조총련 교포들의 존재도 자본주의와의 접촉을 확대하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도 자본주의와의 접촉을 증대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의 상당수가 식량을 획득하고 북한으로 귀국하고 있으며, 이들은 중국지역에서 자본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남한 사람들을 포함한 자본주의 사람들과 적지 않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에 돌아오면서 자본주의의 경험을 주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와의 접촉이나 자본주의 사람들과의 접촉이 지극히 제한된 북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접촉은 자본주의체제 및 자본주의 인간에 대한 기존의 비판적 시각을 완화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접촉이 오랜 기간 꾸준히 이루어짐으로써, 접촉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접촉 이전과 이후에 사상 교양을 충실히 받고,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만 자본주의 체제나 사람들과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20여년에 걸친 접촉은 대상자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간접적인 접촉의 효과가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자본주의 접촉의 증가는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동반하게 된다. 정치적 이념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본주의적 삶의 가치나 방식을 알게 되는 것이며, 이를 수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3. 자본주의 인식과 북한체제의 변화

현 단계에서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변화가 자본주의체제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 동안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인식이 굳게 다져져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북한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유화적인 인식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식이 일반 주민이나 정책 담당자 그리고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요 간부의 인식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분적인 인식변화가 정책변화나 사회변화로 곧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개혁과정에서 인식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배층의 인식변화가 체제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소련 및 중국의 경우나 새로운 인식을 갖게된 지식인 집단이 개혁을 주도하였던 체코나 폴란드의 경우나 일반 민중의 인식전환이 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던 여타 국가들의 경우에 기존 인식의 전환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¹¹⁹⁾

소련연방의 해제로 이어진 페레스트로이카는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의 인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생각한 변혁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혁은 아니었고, 사회주의 체제의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전임자와 비교해 볼 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119) 사회주의 체제 변혁과정에서 시장경제나 자본주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한범,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pp. 18~19.

우리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 가치의 발전에 또한 서구의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의 복지와 사회보장의 향상에 기여한 사회적 개혁들을 실행하는 데 오랜 세월 동안 기여해 왔음을 알고 있으며 또 응당하게 평가하고 있다.¹²⁰⁾

중국의 경우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마오쩌둥 이후 최고의 지도자였던 덩샤오핑도 중국이 역사적으로 낙후되었던 이유를 사회생산력 발전에 대한 소홀과 대외개방을 취하지 않은 두 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낙후성을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중국을 외향적 경제로 발전시켜 대외무역 확대와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해 중국에 맞는 선진 기술과 현대화 관리경험을 중국이 수용하여야 하며, 둘째, 중국의 실정에 어울리는 경제모델을 추구하며 셋째, 반드시 사회주의를 견지해야지 자본주의를 견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덩샤오핑의 입장을 “경제반좌 정치반우(經濟反左 政治反右)”라고 할 수 있다.¹²¹⁾ 물론 그도 자본주의체제를 지향한 것은 아니다.

시장경제를 좀 하면 자본주의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계획의 요소가 더 많은가, 시장의 요소가 더 많은가 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적 구분이 아니다... 계획도 시장도 경제수단인 것이다.¹²²⁾

120) M. Gorbachev,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프라우다』 (1989. 11. 26)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서울: 풀빛, 1990), p. 27.

121) 장송자, “제87기 전인대 헌법의 특징,” 『중국연구』 1권 2호(1993 여름), pp. 9~10.

122) 덩샤오핑 1992년 연설, 이수훈, “중국의 세계시장 재편입,” 『비교사회』 창간호(서울: 전통과 현대, 1997), p. 8에서 재인용.

그러나 자본주의 요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의 인식이 현재 중국의 개혁 방향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소련이나 중국이 최고지도자의 인식전환이 체제변혁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 이와는 달리 폴란드(자유노조), 체코(77현장그룹), 헝가리(민주포럼) 등은 지식인이나 노동자 등 시민사회 부문에서 인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경제침체, 정치적 경직성의 심화와 같은 국가 사회주의의 체제위기를 맞이하여, 동구 국가들의 시민사회 집단들은 체제변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서구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정보가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¹²³⁾

국가사회주의의 몰락과 체제 변혁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체제에 대한 인식변화가 어떤 형태로 생겨나고, 어떤 집단이 중심이 되는가가 변화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에서 체제에 대한 인식전환, 특히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변환이 각 집단 별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최고위층인 김정일은 정상회담 과정과 이후 북한을 방문한 남측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자본주의에 대하여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상회담의 개최 자체가 자본주의 체제와의 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변혁을 경험하였던 소련이나 중국의 최고지도자들의 언술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시장경제나 개방 및 개혁에 대한 분명한 언급도 없으며,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도 없다. 또한 김정일의 최근 언술들이 주로 남측 사람들과 나눈 대화로서 외교적인 언사라는 점

123) 서재진 외, 『사회주의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604~604.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한다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의 경우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지도자 역할을 하였던 1980년대 이후나 김일성 사후의 주요 연설에서도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거의 없다(<표4-1> 참조). 이 기간 이루어진 김정일의 주요 연설이나 글들은 주로 체제단속과 관련된 것들로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 북한 대내외적으로 위기상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그 동안 김정일의 연설들의 대부분이 대내용으로서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사회통합을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4-1>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의 주요 연설

날 짜	제 목	비 고
1982년3월31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돛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1992년1월3일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11월1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1995년10월2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1997년6월19일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1997년8월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8년4월18일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	역사적인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런석회의 50돛기념 중앙연구토론회에 보내신 서한
2000년1월24일	토지정리는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애국위업이다	평안북도 토지정리사업을 현지도 하시면서 일군들과 하신 담화

북한의 기본 정책 방향과 관련된 김정일의 담화에는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문화와 관련된 김정일의 정책에는 서구문화를 포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92년 출간된 『주체문학론』을 고비로 셰익스피어를 포함한 다

양한 서구 문학가의 작품을 읽을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과거 서구의 음악으로 비판받았던 전자악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의 문예정책을 지향하고 있다.¹²⁴⁾ 또한 김정일은 정상회담에서 그 자신이 밝혔듯이 남한 주요 방송들을 시청하고 있고, 영화광으로서 남한영화를 포함하여 서구의 영화들을 보았다는 사실에서¹²⁵⁾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식 문건이나 연설 등의 언술을 통해서 볼 때 김정일이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로 변혁을 지향하거나 자본주의를 수용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의 문화정책이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자본주의를 일정한 정도 이해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의 상대적 우월성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분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체제 특히 정치구조는 유일지배체제가 완성된 이후 최고지도자에게 모든 의사결정권이 집중되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이 설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고위 정책담당자나 실무정책 담당자의 인식에 따라 정책의 추진 속도나 그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현재 고위 정책결정자 집단의 자본주의 인식은 상대적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고위 엘리트들을 면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이 여전히 자본주의체제에 대하여 적대적이며, 기존체제의 변혁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유일지배체제 아래에서 최고지도자의 방침을 넘어서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출한다는 것이 불

124) 이에 대해서는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이우영,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참조.

125) 신상옥·최은희, 『김정일왕국 下』 (서울: 동아일보사, 1988), pp. 125~143.

가능한 일이나 특히 고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있는 사람일수록 보수적인 견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대남사업에 담당하는 고위관리들은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부정적 의식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엘리트 집단은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 까닭에 중국의 개혁파나 보수파와 같은 노선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업무에 따라 자본주의 인식에 대한 태도는 다소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차이가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에 대한 입장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고위엘리트들과 비교할 때 실무에 담당하는 엘리트들의 자본주의 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엘리트 집단과 꾸준히 교류하고, 정책토론을 하고 있는 조선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상대적으로 변혁에 적극적이며,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¹²⁶⁾

북한의 고도의 사회통합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의 일반 주민의 경우는 인식전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선전선동 기제가 여전하며, 상대적으로 외부정보와 접촉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산업화의 진전은 새로운 세대를 등장시키고 있는 등, 집단별로 의식변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⁷⁾ 더욱이 최근 경제난의 심화는 텃밭이나 농민시장이 활성화

126) 조선족 ㄷ씨와의 면담, 2000. 10. 21. 주요 경제 정책결정과정에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그는 북한에서 실무엘리트와 고위 엘리트간에 견해차이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분조관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는 성과물에 대한 농민들의 처분권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실무 엘리트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으나, 고위 정책결정과정에서 있는 엘리트들은 사회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서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127) 이에 대해서는 서재진,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과 동구와

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반 주민들이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자본주의적 삶을 영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중국 거주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¹²⁸⁾ 북한에서 장사경험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이 92.5%에 이를 정도이다(<표4-2>참조). 북한에서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세대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0%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48.9%였으며, 80%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9.5%였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은 81.9%로 대부분의 북한 가정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표4-3>참조).

<표4-2> 북한의 장사경험

장사경험	사 례 수 (개)	비 율 (%)
경험있다	482	92.5
경험없다	39	7.5
계	521	100.0

* 출처: 좋은 벗들,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p. 39.

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128) 좋은 벗들,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난민 1,027명 면담조사결과 발표회』 발표 논문, 2000. 6. 29. 이 조사는 2000년 1월에서 3월까지 2차에 걸쳐 중국거주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다.

<표4-3> 장사하는 세대 비율

장사하는 비율	사 례 수 (개)	비 율(%)
80%미만	106	20.3
80%~85%	78	15.0
85%~90%	81	15.5
90%~95%	161	30.9
95%이상	93	17.9
무응답	2	0.4
합계	521	100.0

* 출처: 좋은 벗들,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p. 38.

농민시장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전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또한 조사대상자 전원이 식량난 해결 이후에도 농민시장의 존속을 바라고 있다.¹²⁹⁾ 또한 북한에서 개혁되어야 할 제도로서 집단농업제도(72.1%), 배급제도(21.5%), 장사규제(6.0%)의 순으로 꼽고 있다.¹³⁰⁾ 이는 집단농장이나 배급제도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반면, 시장제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자본주의 의식이 높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9) 위의 글, p. 25.

130) 위의 글, p. 59.

위의 조사의 경우 대상자가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이라는 점에서 북한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북한 주민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식량난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주민들은 자본주의적 삶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들은 북한으로 귀향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¹³¹⁾ 이들은 중국에서 경험한 자본주의 삶의 특성을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방송 등을 통한 남한 소식의 전파도 자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³²⁾ 이와 아울러 정상회담의 개최,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자본주의 비판의 강도가 완화되어 북한 주민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도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최고지도자로부터 북한주민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인식에 대한 변화가 진행중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집단별로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완화가 변화의 핵심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변화가 자본주의의 수용이나 자본주의 방식으로서의 체제변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일지배체제의 특성상 체제변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김정일의 자본주의 인식이 분명하지 않으며, 고위엘리트들이 여전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 엘리트들의

131) 앞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71.7%가 북한으로 귀향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위의 글, p. 63.

132) 최근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내에서 남한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전문적으로 수선해주는 사람도 생겨났다고 한다.

성향은 변혁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 북한체제에서 김정일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고위 엘리트들이 불복하거나 저항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정책의 발의와 검토 그리고 집행과정에서 변혁의 속도는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의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본주의적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기존체제에 대한 변혁의지로 발전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농민시장의 존속, 집단농장 개혁 등 제도적인 수준에서 변혁을 생각하고 있으며, 개인적 삶이 자본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져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수준에서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개인적 경험이나 개인적 사고가 체제 변혁적 사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조직의 활성화와 같은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나 현재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조직이나 최소한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통로가 미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개방과정에서 북한의 지도부가 사상통제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 발전은 더욱 지체될 수 있다. 다만 주민들이 경험하고 있는 시장활동과 사적 이익의 실현과 같은 자본주의적 삶과 가치들은 북한의 지도부나 현재의 사회구조에 대하여 변혁을 촉구하는 압력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최고지도자로부터 일반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는 북한체제를 개혁·개방의 방향으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체제의 완전한 전환을 이루었던 동구 및 소련이나 과감하게 자본주의 요소를 수용한 중국의 경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제한적이고 완만한 개혁과 개방이 북한이 처해 있는 위기를 해소하는데 미흡하여 체제위기가 증폭되는 경우 인

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각 집단간의 갈등이 현재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남한을 포함하여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과 교류의 확대는 사상통합의 바탕이었던 반자본주의 의식이나 반제국주의 의식을 불가피하게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의식 변화는 개인 및 사회집단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¹³³⁾ 이와 같은 인식변화의 차별성은 북한체제가 효과적으로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고 발전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존 북한체제에 대한 변혁의 동인이 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133) 이를테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단은 인식변화가 완만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집단의 인식변화는 상대적으로 빠를 것이다. 또한 지식인이거나 실무엘리트들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인식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V. 맺음말

북한은 사회주의를 체제이념으로 선택하고, 사회발전을 추구하여 왔다. 분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이념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던 까닭에 북한은 건국 이후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를 지향해왔다. 더욱이 전쟁을 경험하고 이후 남한과의 체제경쟁이 격화되면서 적대적 대치상황을 유지함에 따라, 반자본주의 의식이나 반제국주의의식은 더욱 심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와 경쟁하고 제국주의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뿐 아니라, 북한 지도층의 권력집중화 과정도 북한에서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의식이 강화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산업화의 한계 노정, 국가사회주의의 몰락,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 부분 개방에 따른 외부 사조의 유입은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점차 자본주의에 대한 적대적 감정은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와 북미관계의 개선은 자본주의 인식 변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고 하여도 바로 자본주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여전히 북한은 사회주의, 특히 북한식 사회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외부 사상이나 사조의 유입에 대해서는 엄격하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효율적으로 작동하였던 사회통제기제는 여전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기장’으로 상징되듯이, 개방이 진전됨에 따라 사상교양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에서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선

전선동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자본주의 인식은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현 단계에서 북한체제의 위기 해소를 위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로의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지향하는 정책과 논리적 모순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남한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과거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인식의 물적 토대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선전선동의 틀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록 정치적 필요성으로 자본주의나 제국주의에 대한 일정 수준의 비판이 지속되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현재 북한체제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 변화는 세계체제에 편입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을 포함하여 과거 제3세계 국가들의 추구하였던 발전전략과 흡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여 경제가 성장하는 경우에도, 물질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적 가치의 확대는 필연적이다.

넷째, 이미 의식하지 못한 채 자본주의적 가치와 삶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주민은 북한체제가 위기를 경험하던, 반대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던 간에 자본주의에 더욱 익숙해질 것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체제에 대한 불만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주의를 고려할 것이며, 성장과정에서는 물질적 유인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가치에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다.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기본적으로 반세기에 걸친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의식이 철저하게 내면화되어 있으며, 사회의 중심가치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사회적 의식구조는 남한의 반공주의가 일종의 ‘사고의 회로판’이 되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사회주의 몰락은 북한체제에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며, 자본주의에 의한 흡수통일을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구조적 변화 추세와 상관없이 기존의 지배적 의식구조가 재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현재 여전히 보수적인 사고가 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 변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과거와 같이 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남한과의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는 전통적인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의식을 지지하는 집단의 주도아래 과거의 인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이 유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긴장이 고조되는 경우도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가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대외적인 긴장이나 갈등 이외에도 북한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보수적인 집단이 헤게모니를 장악하면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는 억제될 수 있다. 분단과정에서 기득권을 유지하여온 집단은 변화에 부정적일 것이다. 현재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거나 사회통합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경우 잠재되어 있는 집단적 이해의 차이는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보수기득권 집단들은 갈등의 원인을 개혁·개방적인 정책의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성향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들은 상황적 요인이거나, 사회적 갈등의 파생물로 현상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은 사회구조적 요인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인식의 변화는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자본주의의 인식의 변화가 자본주의의 수용이나 자본주의식의 사회변혁을 동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북한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새로운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발전이 기본적으로 남한의 이해에 부합하고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의 가능성을 넓혀준다고 본다면, 북한의 자본주의 인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본주의 이념을 북한에 강제하거나 자본주의적 침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심어주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수용이 북한체제의 유지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득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일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국민호. 1997.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중국의 정치문화: 유교의 역할.”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비교사회』. 서울: 전통과 현대.
- 김대중 외. 1999. 『아시아적 가치』. 서울: 전통과 현대.
- 김명호. 1978. 『미제가 남조선에 퍼뜨리고 있는 부르조아 인생관의
반동적 본질』.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문창. 1999. 『열망』.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김재용. 2000. 『분단구조와 북한문학』. 서울: 소명.
- 김정일. 1992.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희일. 1976. 『민제식민지통치하의 남조선이 걸어온 예속과 몰락의
30년』. 평양: 건국통일사.
- 리기도. 1996. 『주체의 문예관과 외국문학』.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 리정근. 1989. 『남조선사회는 부인부, 빈익빈의 반인민적 사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부.
- _____. 1989. 『남조선사회는 부인부, 빈익빈의 반인민적 사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부.
- 민족통일연구원. 1991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
연구원.
- 박승덕. 1985.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배승순. 1962.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와 동향』. 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 백남룡. 1996. 『동해천리』. 평양: 평양출판사.
- 서재진 외. 1993. 『사회주의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
일연구원.

- _____. 1994. 『북한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과 동구와의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신기철·신용철 편. 1992. 『새우리말 큰 사전』. 서울: 삼성출판사.
- 신상옥·최은희. 1988. 『김정일왕국 下』. 서울: 동아일보사.
- 신용선. 1999. 『지금은 봄이다』. 평양: 평양출판사.
- 이우영. 1994.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_____. 199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이현복. 1993. 『남북한 언어의 비교』. 서울: 통일원.
-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2000. 『탈분단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 한중모·정성무. 1983.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황한욱. 1990. 『현대제국주의의 경제구조』.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Abercrombie, N., Stephen Hill, Bryan S. Turner, 1980.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Amsden, Alice H. 1990.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Oxford Univ. Press.
- Bottomore, Tom eds. 1983.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Oxford: Blackwell Pub.
- Bottomore, Tom. 1983.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Worcester: Blackwell Reference.
- Etzioni, Amitai & Etzioni-Halevy, Eva. eds. 1973.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 New York: Basic Books, Inc.
- Garner, Robert Ash 1977. *Social Change*.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
- Inglehart, Ronld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 Socie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 Lukacs, George. 1971.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London: Merlin Press.
- Marx, Karl & F. Engels. 1973. *On literature and Art: A selection of writings*. Lee Baxandall & Stefan Marawski, trans.& ed. St.Louis: Telos Press.
- Marx, Karl 1987. *The Eighteenth Brumaire of Louis Bonaparte*. 허교진 역. 『프랑스혁명3부작』. 서울: 소나무
- Moore, Wilbert E. 1974. *Social Chang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 Ogburn, William. F. 1922. *Social Change*. New York: Viking Press.
- Senhaas, Dieter. 1990. *Von Europa Lernen Entwicklungsgeschichtliche Betrachtungen*, 한상진·유팔무 역. 『유럽의 교훈과 제3세계』. 서울: 나남.
- Weber, Max. 1976.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alcott Parsons trans. London: George Allen & Unwin.
- Weiner, Richard R. 1981. *Cultural Marxism and Political Sociology* London: Sage Pub.

2. 논문

- 강은식. 1973. “경제문화적침투는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의 올가미.” 『근로자』. 1973 12.
- 김일성. 1961.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61년9월11일. 『김일성 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_____. 1968.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 정신을 구현하자.” 1967년12월16일. 『김일성 저작선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79. “현 국제국내정세와 여성들의 과업: 평양시 여성일군들앞에서 한 강연.” 1945년 10월 25일. 『김일성저작집』 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 _____. 1980. “문화선전사업을 강화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1949년7월18일. 『김일성 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1. “유엔무역개발회의 총서기일행과 한 담화.” 1984년3월 15일. 『김일성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1.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상품류통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58년 6월 7일.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1. “제7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59년 7월 1일. 『김일성저작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2. “현정세와 우리 당의 과업: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한 보고.” 1966년 6월 30일. 『김일성저작집』 2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한 축하연설.” 1969년 9월 18일. 『김일성저작집』 2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 “교육과 문학예술은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과학교육및문학예술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0년 2월 17일. 『김일성저작집』 25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을 정확히 관철할데 대하여: 함경북도 인테리들앞에서 한 연설.” 1968년 6월 14일.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3.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육교양하자: 교육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 1968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2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4. “근로자들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전국상업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9월 15일. 『김일성저작집』 2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4. “미국 <뉴욕타임스>지 기자들과 한 담화.” 1972년 5월 26일. 『김일성저작집』 27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4. “베루조선친선문화협회대표단과 한 담화.” 1973년 9월 15일. 『김일성저작집』 2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5.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1974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5.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재일본조선청년예술체육대표조국방문단, 제2차재일본조선교육일군조국방문단, 재일본조선고급학교학생조국방문단 성원들앞에서 한 연설.” 1974년 9월 24일. 『김일성저작집』 29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2월 15일. 『김일성저작집』 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6. “짐바브웨국회대표단과 한 담화.” 1987년 1월 19일. 『김일성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 “사회주의예술의 우월성을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자: 제7차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할 예술인들과 한 담

- 화.” 1959년 7월 1일. 『김일성저작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87. “조선의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대표단과 한 담화.” 1978년 6월 15일. 『김일성저작집』 33권. 조선로동출판사. 1987.
- _____. 1990.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과 한 담화.” 1981년 3월 14일. 『김일성저작집』 36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 “일본사회당대표단과 한 담화.” 1984년 9월 19일. 『김일성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2.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뼈루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대표단과 한 담화.” 1983년 6월 30일, 7월 1일, 5일. 『김일성저작집』. 38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 “네팔신문 <아스티토> 책임주필과 <아크바르>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87년 7월 23일. 『김일성저작집』 4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4. “신년사,”
- _____. 1995.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앞에서 한 연설.” 1990년 8월 18일. 『김일성저작집』 4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6.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당, 국가, 경제 지도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 1991년 11월 23, 26일. 『김일성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6. “조선민족은 누구나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재미교포녀류기자와 한 담화.” 1994년 4월 21일. 『김일성저작집』 44권. 평야이 조선로동당출판사.
- _____. 1996. “함경북도당위원회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함경북도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한 연설.”

- 1992년 9월 4일. 『김일성저작집』 43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 김재용 1992. “북한문학계의 ‘반종파투쟁’과 카프 및 항일혁명문학.” 『역사비평』 16.
- 김찬호. 1964.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수법.” 『근로자』, 1964 23.
- 김철희. 1962. “실존주의 반동성과 그것이 남조선 사상계에 미치는 해독적 작용.” 『근로자』, 1962 14.
- 남성욱·문성민. 2000.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1998년을 중심으로.” “북한의 시장경제부문 추정에 관한 연구: 1998년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권 1호.
- 등소평 1992년 연설, 이수훈. “중국의 세계시장 재편입.” 『비교사회』, 창간호. 서울: 전통과 현대. 1997.
- 리상현. 1962. “최근 남조선문학예술의 경향성.” 『근로자』, 1962 12.
- 리승복. 1980.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에 물젖은 남조선사회의 퇴폐풍조.” 『근로자』, 1980 1.
- 리영환. 1984. “부패하고 퇴폐적인 미국식 생활양식.” 『근로자』, 1984 8.
- 리종표. 1983. “외래어의 공해지대로 전변된 남조선 사회.” 『근로자』, 1983 10.
- 리주석. 1964. “남조선의 사회상과 실존주의 철학.” 『근로자』, 1964 2·3.
- 서치렬. 1987. “남조선에 류로되고 있는 미국식 생활양식의 해독적 후과.” 『근로자』, 1987 12.
- 손종철. 1988. “남조선 경제과국은 외자도입의 필연적산물.” 『경제연구』.
- 안기중. 1984. “남조선에 범람하고 있는 말세기적인 퇴폐풍조.” 『근로자』, 1987 7.
- 오양열. 1997. “남·북한 문예정책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은종섭. 1987. “남조선 반공문학의 민족반역적 정체.” 『근로자』, 1987 8.
- 이우영. 1991. “박정희 지배이념의 지식사회학적 연구.” 연세대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_____. 2000. “남북한 사회의 문학예술.”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시대를 열며』. 서울: 삼인.
- 장기천. 1977.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남조선사회의 부패성.” 『근로자』, 1977 3.
- 장송자. 1993. “제87기 전인대 헌법의 특징.” 『중국연구』 1권 2호
- 조한범. 1996. “이행하는 사회주의 사회.” 박길성 외. 『현대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사회비평사.
- _____. 1996. “포스트 사회주의 이행기의 러시아 사회변화연구.”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좋은 벗들. 2000. “북한주민의 사회·경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난민 1,027명 면담조사결과 발표회』 발표 논문. 2000. 6. 29.
- 최수영. 1993. “북한의 외자유치 추진현황과 전망.” 『통일연구논총』 제2권 1호.
- 최태진. 1988. “남조선사회는 가장 반동적이며 부패한 사회.” 『근로자』, 1988 7.
- 최필원. 1971. “남조선에 대한 미제 신식민주의 정책의 반동적 본질.” 『근로자』, 1971 11.
- 한중모. 1992. 『주체적 문예리론의 기본 1: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의 건설』. 평양: 문예출판사.
- 홍성락. 1974.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 침투와 양풍양화의 썩어빠진 풍조.” 『근로자』, 1974 7.
- 황순화. 1999. “남조선에 대한 국제통화기금 <구제용자>의 침략적,

- 략탈적 성격.” 『경제연구』, 1999 4호.
- Gorbachev, M.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프라우다』 (1989. 11. 26): 『사회주의 대개혁의 논리』 (서울: 풀빛, 1990).
- Inkels, Alex. 1968. “Making Men Modern: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Individual Change on Developing Countries.” Etzioni, Amitai & Etzioni-Halevy, Eva eds. *Social Change: Sources, Patterns, and Consequences*.
- Parsons, Talcott. 1961. “Some Consideration on the Theory of Social Change.” *Rural Sociology*, XXVI.
- Wolfe, Bertram D. 1989. “Introduction.” Rosa Luxemburg. *The Russian Revolution and Lenin or Marxism?* 박영옥 역. 『러시아혁명: 레닌주의냐 마르크스주의냐』 서울: 두레.

3. 기타

- 『백과전서』, 198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선말대사전』, 199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조선중앙년감』, 1950~90.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정치사전』, 1973.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로동신문』.
- 『조선중앙통신』.
- 『연합통신』.